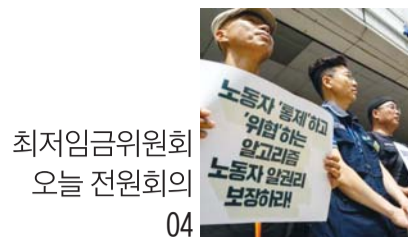


22일 Market Index			
↑ 코스피	7847.71	↑ 코스닥	1161.13
	(+32.12)		(+55.16)
↓ 금리 (연이자율)	3.736	↑ 환율 (원/달러)	1517.60
	(-0.017)		(+11.50)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전원회의  
04

## ‘6억 성과급’ 기대감 뒤 커지는 사내갈등 변수

### 삼성 노조 투표율 90%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90%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비반도체 부문(DX) 직원 중심의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사업부 간 갈등 양상도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25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마감에 이를 앞둔 이날 오전 8시 29분 기준 찬반 투표율은 86.16%를 기록했다. 27일 오전 10시 투표 마감까지 투표율은 9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 임금협상 합의안 내일 투표마감 “회사 분위기 고려 가결 가능성 커” 조합원 ‘성과급 격차’ 불만 확대 “노노 갈등이나 조직 이탈 우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를 고려하면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안 통과 가능성이 커질수록 사업부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특히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모면에서 세번째인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합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 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 부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이후 초기업노조 측은 공투본을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사업부별 이해관계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DX와 DS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조직 내부 박탈감과 노노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DS 부문 조합원이 절대다수인 만큼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사업부별 성과와 보상 차이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내부 단결이 중요한 조직인데 사업부별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면 노조의 결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역시 조직 내부 화합 차원에서 보상 체계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정합의안과 관련한 주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엑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 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명부 확보 이후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사과 예정

마케팅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 삼전·하이닉스 ‘2배 ETF’ 내일 나온다

### 금융당국, 일간 변동률의 ±2배 하루만에 60% 손실 우려 ‘주의’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변동률 2배로 반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증시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따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국내에는 엄격한 분산 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금지돼 왔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활발하게 거래 중이다. 미국 나스닥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고, 런던 등 유럽 증시에는 개별 종목 3배 레버리지도 상장돼 있다. 해외에는 국내 종목 2배 ETF도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분산투자 원칙과 투기성 우려를 이유로 가로막았던 규제를 풀 것은 해외 ETF로 이동한 투자 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풀림과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레버리지 ETF는 ‘저택대 효과’ 때문에 단기간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 가격 제한 폭이 30%이므로,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60%의 손실도 날 수 있다. 또 투자금 100만원이 50%의 손실로 50만원이 되고 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야 한다.

특히 하루 단위로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지수가 등락하는 횡보장에는 투자금 손실이 크게 불어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하면 일반 상품은 100만원→80만원→96만원으로 4%의 손실이 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100만원→60만원→84만원으로 16% 손실이 난다.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장에서 장기 투자용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험 없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요즘 주가 등락 폭이 큰데 숙련되지 않은 투자자가 삼성전이라고 (믿고) 들어와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 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원칙적 합의… 휴전 60일 연장

###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 트럼프-모스타바 최종승인 남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타임스 등은 다만 우라늄 폐기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60일간의 휴전설이 대두된 상태다. <관련기사 4면>

단, 공식 합의문에 아직 서명은 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료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모스타바가 큰 틀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가 서명할 구체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항에 동의할지, 모스타바가 공식 승인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 역시 원칙적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실제 이행 방식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종전 합의의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고 짚었다. 이

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 비축량 등도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료는 이러한 사항들이 “향후 협상에서 다루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좋고 적절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패배자들”이라고도 적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무소속 전·현 경남도의원 11명, 김경수 후보 지지 선언 /사진 뉴시스  
▲부산 野 출마자들 공세 나선 與…“한동훈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몰랐나”

▲조국혁신당 “민주, 김용남에 ‘대부업 의혹’ 자료 공개 요구하고 책임있는 조치해야”  
▲박근혜 25분간 방문한 고 윤영수 생가 ‘복적’… “일할 기회 주세요”

▲추미애 “주거불안 덜고, 청년 미래·지역 발전 뒷받침” 공약  
▲이정현 “광주전남, 시·데이터·에너지산업 국가 거점으로 육성”

# 멈춰선 연금개혁... 연기금 운용수익·지방선거 표심 '축각'

### 여·야 연금개혁 방향성 놓고 견해차 선거이후 관련 논의 가속화 전망 노인빈곤·세대 간 형평성 등 쟁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몰린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안건인 만큼 선거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와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선거 이후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들은 여·야가 각각 추천했던 만큼, 견해차가 뚜렷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약 8개월에 불과했던 활동 기간도 민간자문위가 실패한 이유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연금특위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2033년 기준 13%)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며, 선제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작년 3월 단행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 대체율 인상)의 배경에도 이같은 여·야간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다만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여당은 노후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됐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제도를 재설계하면 특정 세대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온 이유다.

지난해 연금개혁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64년

이다. 4%포인트(p)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존의 2056년보다 소진시점이 8년 늦어졌다. 연 평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7년 더 늦춰지지만, 운용 수익은 고정된 수입이 아닌 만큼 연기금은 40년 내에 소진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소진 위기를 겪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은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이 한창이었던 지난 1960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 수)은 6.1명이다. '2차 베이비붐' 당시인 1970년에는 4.5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했다. 불과 30년 뒤인 2056년에는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83.9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두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노인빈곤' 및 '세대간 형평성'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약 39.7%다. 노인 10명중 4명이 중위가구 소득의 50%에 미

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깝게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청년세대가 그 재정을 감당해야하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어든다. 그 예로 올해 만 50살이 되는 1976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넉넉한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지만,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수익비는 1.7배에 불과하다.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면 미래세대는 낸 만큼만 간신히 돌려받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연금개혁이 노인빈곤과 세대간 형평성 등 쟁점을 남겨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의 재정정을 주문하면서,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李 대통령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

###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기사 공유 인권침해·역사왜곡 등 대응 시사

스타벅스코리아의 '뱅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조롱과 혐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와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사회적 참사나 국가 폭력 등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봉하마을에서 고인을 조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지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일베는 2010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인기 게시물을 모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극우 성향·남성 중심 커뮤니티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는 '빔(Be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me·유튜브 콘텐츠)을 유행시킨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빔'이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세월호 참사, 5·18을 조롱하는 특정 단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퍼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베는 쇠퇴한 지 오래", "언젠가 일베냐"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는 본질과 먼 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베에서 만들어진 빔'은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뱅크데이' 이벤트에도 비판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특정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악자 혐오, 인권 침해, 역사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참여 인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다.

다만, 이 당시에도 법률적 한계가 있어 폐쇄는 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에 따라 사이트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뿐,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해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 국회에서 거듭 무산되었던 혐오표현 규제 입법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라며 "혐오 콘텐츠를 방지·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홈플러스, 본사·대형마트 등 잔존사업도 판다

### 유통산업 침체 속 인수자 나올지 미지수

홈플러스가 핵심 우량 자산이었던 슈퍼마켓(SSM)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 데 이어,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포함한 잔존사업 부문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자,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업, 본사 등을 포함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 절차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는 익스프레스 매각 당시와 같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최근 잠재적 매수자들에게 공식 티저레터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추진된다.

앞서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전체 사업부를 한 번에 넘기는 통매각을 희망했으나, 막대한 인수 비용과 대형마트 업황 둔화 부담 탓에 원매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던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떼어내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에 매각하는데 성공했지만, 매각대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기는 계속됐다.

현재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달 월급을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자금난 우려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7월 3일까지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등 고강도 구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뉴시스

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유입 전까지 버틸 브릿지론과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메리츠 측이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가 없는 제3의 기업이 인수할 경우 단숨에 국내 대형마트 3위 사업자로 도약하고 온라인 채널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대형마트 본체를 인수할 만한 역력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감한 점도 걸림돌이다. 과거 홈플러스 측은 보유 부동산 자산을 4조 8000억 원대로 평가했으나, 최근 메리츠그룹이 담보로 잡고 있는 62개 점포의 부동산 가치는 1조 5000억 원대로 과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매각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



# 레버리지 ETF 반도체 쏠림 경고등... 손실우려 vs 투자기회

## 반도체 2배 ETF의 명암

서학개미들이 환전 비용과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해외 증시에서나 찾았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27일 국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반도체주 밸리에 합류하지 못해 'FOMO'(포모·소외공포)를 겪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스피와 코스닥 레버리지 ETF 열풍은 지난해 기록적인 한국 주식 투자 기회를 놓친 개미와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한 투자금을 한국 시장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한다.

### ◆반도체 쏠림 더 커질라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키움·하나·신한·한화 등 자산운용사 8곳은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상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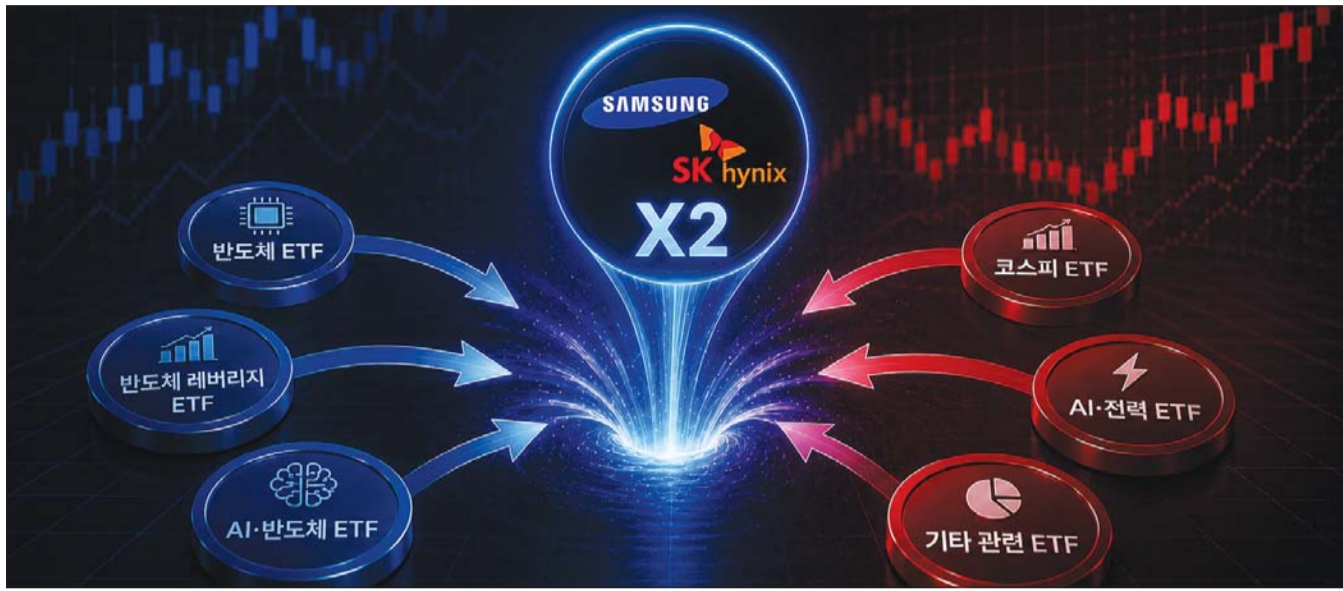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와 하락 시 수익을 추구하는 인버스 ETF로 구성된다. 레버리지 ETN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제공하고 배당 등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ETF·ETN 상장 규모는 총 4조 3227억원이다.

**내일 삼성·하이닉스 2배상품 상장 규모 4조3227억 달해  
개미 관심 속 자금 이동 촉각  
반도체 쏠림·변동성 우려 확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10만 89명이 이 상품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신청했고 수료자는 9만 3118명에 달했다.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총 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반도체' 쏠림을 더 확대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 ETF 시장에는 반도체 관련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핵심 편입 종목으로 담고 있는 TIGER 반도체 TOP10 ETF 순자산은 최근 1개월간 3조원 넘게 증가했고, KODEX 반도체 ETF 역시 2조원 이상 늘었다. SOL AI반도체 TOP2플러스 ETF,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등 AI·반도체 테마 ETF에도 자금이 몰렸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으로까지 투자 열기가 확산된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진다. 최근 1개월 기준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는 약 7600억원, TIGER 반도체 TOP10 레버리지 ETF에는 약 4200억원이 유입됐다.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ETF 경우는 SK하이닉스(45.8%)와 삼성전자(26.8%) 비중이 70%를 넘는다. 시장에서는 사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세에 베타하는 상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형 ETF 역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인 탓이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규 자금 유입보다 기존 투자자 자금 이동이 중심이 될 경우 일부 상품 간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자기잡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보다 두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운용사 관계자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기존 반도체 레버리지 ETF"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반도체 업종과 관련 업종이 대다수 올랐지만 6개월 내에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뿐이다. 이어 "반도체 업종 전체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워낙 강해 27일 상장 당일 수급 이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손실 증폭 가능성 경고  
빚투·레버리지 과열 차단 주문  
환전·세금 부담 낮춘 국내 상품  
고수익 기대만큼 손실 확대 우려**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층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인 투자자들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36조 4723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27조 2865억원)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9조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 ◆판단과 투자 결과는 투자자의 몫

FT는 "한국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상품에 내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해외에서 충분한 거래 경험이 있고, 사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며 상품 출시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마케팅 활동을 지양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유의 사항'을 통해 해당 상품이 단일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 전 상품 구조와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증폭될 수 있는 고

위험 상품"이라며 "투자자는 자신의 손실 감내 범위 안에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에서 과도한 빚투(빚

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해외 레버리지 ETF로 이동했던 수요 중 일부는 국내 상장 상품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환전 비용과 세금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국내 상품의 체감 매력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환전과 세금, 접근성이라는 장벽을 낮춘 국내 2배 레버리지 ETF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높은 수익 가능성과 그에 상응하는 손실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상품"면서 "그 위에 올라설지는 투자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일리있는 선택

든든함도 능력도 1위인 NH투자증권이니까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더 기대되는 IMA1이 투자자의 답이 됩니다

**IMA1이 투자자의 답이 됩니다**

## N2, IMA1

**든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발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대졸리더십, ECM 주관,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MB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국민은행연계 기준  
이월고객 1,043만 명 (총차·당사 고객 제외)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외사항으로 투 정치 중도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산>을 당사의 고유자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 및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

# ‘최저임금 인상률·적용범위 확대’ 두고 노사 줄다리기 예고

## 최저임금위, 오늘부터 재가동

노·사·공 3자 구조 온전히 회복  
노사 최초 요구안 내달 초쯤 윤곽  
노동계 “최저임금 7~8% 수준 인상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 적용”  
경영계 “지급 한계, 업종별 구분해야”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기본권 확대하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 갈등으로 초반부터 파행 우려가 제기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복귀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공방을 넘어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노동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위원 전원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에 관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심의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약속하며 복귀를 설득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공 3자 구조가 온전히 회복되면

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오는 6월 초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극명하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을 들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수준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쳐,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이유는 인상률 외에도 ‘적용 범위 확대’라는 대형 쟁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계약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망 밖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처음으로 최임위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가 파행 위험을 무릅쓰고 조기 복귀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 논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노사 간의 전방위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률 대치에 도급제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까지 병행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무척이나 실린다. 실제로 법정 기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된 사례는 역대 9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형식적인 틀은 갖춰졌지만, 해법을 찾기 힘든 고차방정식 과제들이 쌓여 있어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앞둔 7월 중순까지 장기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美-이란, 원칙적 합의에도 유가 원상복귀는 ‘난망’

국제유가, 잠정타결에 5.61% 하락  
양측 합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관련  
안정적 수출, 최소 2~3개월 걸릴 듯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만에 소폭 하락 전환했다. 25일 서울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제유가 안정화의 길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전면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요 해외 기관의 평가와 맞물려 있다.

국제유가는 잠정 타결 소식에 일단 내림세를 보였다. 북해산브렌트유 선물(7월 인도분)은 25일(한국시간) 오후 2시 기준 배럴당 100달러 아래인 97.73달러에서 거래됐다. 전 거래일 대비 5.81달러(5.61%) 내렸다.

미국 뉴욕타입스는 24일(현지시간) 경제분석기관인 하이프리프린스 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칼 와인버그의 견해를 전했다. 와인버그는 유가 관련해 “아무

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석유류 가격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주춤한 가운데 미-이란 간 협상 경과에 따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올해 2월 말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전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량의 2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있었다. 이후 석달 가까이 사실상 유조선 등 선박의 항행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향후 해협에 대해 일정 수위의 통제권을 관철해 낼지, 또 통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지 등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존재한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고문은 이란 매체에 밝힌 입장에서 자국이 해협을 관할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이란이 새롭게 확보한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1500~2000척의 각국 선박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다. 봉쇄가 풀리더라도 실제 해상 운송 정상화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해운업체들이 양측 간 합의가 지속 가능하다고 여길지, 또 항행이 안전하다고 확신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이란이 해협에 부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를 제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가장 고무적인 가정하에서도 이전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지는 못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기타 해군 강국들이 기뢰 제거 협정과 장비를 현지에 배치하는 데만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안정적인 수출 운항이 재개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험사들이 기뢰가 제거 시까지 선박 호송 및 추가적 안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선박 운항의 추가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해협을 통과가 재개되더라도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입항해, 원유·천연가스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까지는 추가로 수 주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원유 값 급등은 전 세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특히 운송비용 부담이 큰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다.

미국 역시 자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24일 기준 갤런당 4.51달러까지 치솟았다. 한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 리터(1)당 2011.29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SDF·로봇부품 조직 신설

휴머노이드 로봇 체제 전환 박차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과 현장 투입을 앞두고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과 로봇 부품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아틀라스의 초기 생산라인 인착과 향후 양산 체제 전환의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SDF 추진 담당 보직을 신설하고 알페시 파텔 상무를 선임했다. SDF는 인공지능(AI)이 생산·품질·물류 등 공장 전반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체계로 통합 제어하는 개념이다.

파텔 상무는 글로벌 컨설팅 매켄지앤드

컴퍼니 출신으로 2023년 현대차그룹에 합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 S)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맡아왔다. 그는 SDF 운영체제 설계·디지털트윈 구축·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며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도 직접 챙긴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부품구매실도 신설하고 구매 경쟁력을 강화한다. 로보틱스부품구매실장에 소현성 전 베이징현대 발전기획본부장(상무)을 선임했다. 소 상무는 현대차그룹 부품 구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로봇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그룹 계열사 부품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

추에이터(구동장치)와 그리퍼(로봇 손), 헤드 모듈 등 핵심 부품 6종을 양산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관세·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대관을 담당하는 GPO 산하에 외교·통상·관세를 전담할 글로벌통상전략실을 신설했다. 글로벌통상전략실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장재량 상무가 낙점됐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갖추고, 현대차·기아 생산 현장에 2만5000대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틀라스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HM GMA 공장에서 부품 분류 서열 작업을



지난 3월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을 맞이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 업무까지 담당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후 인도 푸네공장,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등 신규 거점으로 SDF 기술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아틀라스 양산 초기에는 대당 생산원가가 14만 달러(약 2억 원)지만 5만 대 이상 생산할 경우 3만 달러(약 4500만 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글

로벌 공장 투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4월 미래 먹거리에 대해 로봇을 지목하며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현대차가 모빌리티를 넘어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넌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 민주·국힘 지도부 전국 유세... 텃밭·스윙 지역 동시 공략

당 투톱, 타지역 도는 '투트랙' 전략 '캐스팅보트' 충남서 지지 호소 典, 전북·충남서 지역 공약 발표 野, 대구·경북·충남 공략 집중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투표가 9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지도부의 '투톱'이 텃밭과 스윙보터 지역을 찾아 표심을 호소했다. 숨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승리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북과 충남권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충남권을 찾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인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인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전북과 충남을 찾았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현재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된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북 정읍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전북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이원택을 전북지사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



정청래(윗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집중유세에 참석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와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원택"이라며 "전북 민심을 믿는다. 민주당에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만큼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전주로 이동해 전북 지역 후보자 지원 유세를 했다. 이어 충남 서천과 보령에서 유승광 서천군수,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를 각각 지원사격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날 정읍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후 충남 논산과 천안을 찾아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첨단 방위산업 관련 현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 비전선포식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을 제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에 조성 중인 국가국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방산단 특별법 제정에 이어 당내에 국방산단특별지원단을 구성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당 차원에서 국방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면서 "논산을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사도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전은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고, 천안으로 이동해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핵심 현안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는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 투톱이 다른 지역을 도는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송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스윙 보터가 많은 충남 지역을 찾았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를 마친 뒤 오후 대구시장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공동 비전선포식을 찾아 후보들을 격려했다. 장 위원장은 비전선포식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후

보에게 대구와 경북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경제 전문가, 경제시장인 추경호 후보, 그리고 그동안 경북지사로서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철우 후보, 이 두 분이 대구와 경북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 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장 대표는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 도보유세를 했고,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서도 유세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충남으로 향한다. 송 위원장은 충남 당진시장 오거리 일대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유세를 도운 뒤, 공주 상성시장으로 이동해 김태홍 충남지사 후보와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최원철 공주시장 후보 유세를 도왔다.

특히 공주상성시장 유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모친 고(故) 육영수 여사의 충복 옥천 생가에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후 대전과 충남 공주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은 탄핵 이후 9년 만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충북 옥천에 있는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 모친 영정을 보고 있다. /뉴스시

## 故 육영수 생가 찾은 박근혜... 국힘 지원

김영환 후보 등과 만나 협업 당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1년 만에 방문하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지난해 5월 27일, 21대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직전에도 김문수 후보 지원을 겸해 어머니생가를 방문한 때로부터 약 1년만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국민의힘 후보자, 신변보호·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 정치 유튜브, 언론사 취재진 등 약 1000명이 일시에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생가에 머문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머니 육 여사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한 후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을 향해 "건강이 중요하다.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주변을 에워싼 선거구민 등에게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주

세요. 이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환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육 여사와 정지용 시인, 우암 송시열, 중봉 조현 선생 등 옥천이 낳은 인물의 한곳에서 보고 배우는 공간(역사민물전시관)을 건립하는 충북지사-옥천군수 후보 공동공약을 발표했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두 분이 꼭 당선하시고, 협업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어머니 생가를 방문한 후 박 전 대통령은 옥천읍내 한 식당에서 박덕흠 공동선대위원장, 김영환-전상인 등 후보자 등과 점심 회동을 한 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로 이동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번주 부산-울산-경남과 강원도 원주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는 일정이다. 2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부산 기장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28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지원유세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서남권 대도약 vs 동북권 신성장 '맞대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 서울시장 선거

정원오, 교통·주거환경 개선 공약 오세훈, 문화·산업 융합 도시 구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를 9일 앞둔 25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서남권과 동북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서남권 대도약', 오 후보는 '동북권 신성장론'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강서·양천·금천·영등포구 등 서남권 4개 지역을 찾아 첨단 산업 육성 비전, 교통 인프라 구축, 주거 환경 개선 등 '서남권 대도약'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강서구 마곡 나루역 유세에서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거론하며 "(오세훈) 시장이 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관심이 없고 안전을 등한시하고 공사하는 분들도 등한시했다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은 약속한 8만 호(공급) 절반도 못 지켜 지금 주거난이 발생했다"면서 "본인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시장이 또 약속하고 있다. 31만 호를(공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는) 일 못하는 사람은 투표로 심판해서, 바뀌서 새롭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일 잘하는 시장을 뽑아서 우리도 효능감 좀 느끼자"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후에는 양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를 차례로 찾아 연휴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 백화점, 쇼핑몰 주변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또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마곡나루역 앞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동산관광센터에서 관광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

찾아 자신의 부동산 공약인 '착착 개발' 구상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은 모습으로 유세자 연단에 올랐는데,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와 역동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오세훈 후보는 이날 관악구로 일정을 시작해 도봉·노원 등 강북권 유세를 통해 '동북권 신성장론'을 펼쳤다. 강북권은 오 후보에게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오 후보는 도봉산 입구에서 등산객들과 만났고, 흙플러스 방학점 앞과 노원구 경춘선 숲길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그리고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성동구를 찾았다. 특히 성동구는 정원오 후보가 3선 구청장을 한 곳이다.

오 후보는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 낙후 지역이었던 서울 동북권을 문화와 산업·교통이 융합된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서울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만들겠다는 구

상을 발표했다. 국내 최대 규모 K팝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상계 일대 바이오메디컬 단지 조성 등 일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투어노믹스'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악산·북한산 등 서울만의 자연환경으로 등산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한 마디로 '3377'로 요약된다"며 "3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 3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고, 한번 들어오면 7일은 머무르고 70%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최근 유행 아파트 분양가 급등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했고,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뜻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문화강국의 내일은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는 중

과거의 아름다움부터  
기대되는 미래까지  
그려보고 상상하는 곳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기에

KB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시작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의 박물관 무료 관람을 지원합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일상 속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 KB 금융그룹**

# 34세 이하 청년에 19% 금리... 최대 20% 손실보전 펀드

## 내달 출시 '정책금융상품'

정부와 금융당국이 오는 6월 한달 동안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비롯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청년형ISA'와 '국민성장ISA'도 출시된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투자상품인 '국민성장펀드'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 ◆ 청년미래적금 '최고금리 19.4%'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6월 중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우대형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적금형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 수준과 근로지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형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만 적용된다. 은행 금리를 8%(기본 5%+우대 3%)로 가정하면 만기 시 최대 2138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연 14.4% 금리의 적금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 ISA	일반 ISA(서민형)	청년 ISA	국민성장 ISA
가입대상	3년 이내 금융소득과세 이력 없음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급여 7500만원 이하)	일반ISA와 동일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연간 4000만원	연간 4000만원 (예정)	
세액공제	최대 200만원까지 수익비과세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비과세	기존 ISA 혜택 + 이자·배당소득 소득공제 + 납입액에 과세특례	기존 ISA 혜택 + 분리과세를 완화
비고	+ 해외주식 투자 불가		해외주식 투자 불가 일반ISA와 중복가입 허용 (청년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매달 50만원 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주식·펀드·ETF 등에 투자 'ISA' 비과세 강화... 해외주식 불가

AI·반도체·바이오 등에 투자상품 1인당 연간 1억 '국민성장펀드'

입금액의 12%에 정부기여금을 제공한다.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최근 소득구간 동안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8% 금리를 가정하면 만기 시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19.4% 금리의 적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 우대형 가입기간 동안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아직은

가입기간 내 2회까지 허용한다. 이직횟수를 초과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최초가입을 시작으로 매년 6월과 12월마다 신규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만큼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 급여나 군장병 급여 이력이 있으면 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올해 6월 최초가입에 한해 '상금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 청년형·국민성장 ISA, 절세혜택 강화  
절세혜택을 강화한 청년형ISA와 국민성장ISA도 6월 중 나온다.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대비 납입한도와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주식·펀드·리츠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형ISA는 만 19~34세이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ISA 통장에 제공됐던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에 더해 납입액 자체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한다. 단,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성장ISA는 나이와 소득제한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된다. 기존 ISA 통장에 제공했던 비과세 혜택을 강화했으며, 분리과세를 완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ISA통장과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단, 청년형ISA와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투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 ◆ '국민성장펀드', 원금 20%까지 손실보전

정부가 원금의 최대 20%까지 손실금을 보전하는 펀드형 상품인 '국민성장펀드'도 오는 6월 11일까지 판매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이다. 최소 투자액은 운용사별로 상이하나 10만원~100만원 수준으로 설정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원금의 최대 20%까지 손실을 보전하지만, 모험자본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5년 동안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양도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가입 이후 3년 이내 양도 시 소득공제·배당소득·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부분이 추징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라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판매액의 20%를 서민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30억 가격 부담돼도 '공급부족 서울' 신축, 일단 청약"

(전용 84㎡)

## 부동산 현장 르포

### 흑석 '써밋더힐' 견본주택

최고 16층 30개동에 1515가구 규모 지하철 9호선 흑석역 도보 이용 가능 59㎡A타입, 3베이 판상형구조 적용 침실 확장시 불박이장·파우더룸 제공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에 공급되는 '써밋더힐' 견본주택. 지난 22일 개관 첫날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써밋 갤러리는 오픈 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과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중년 부부부터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유닛을 둘러보거나 청약 상담을 받고 있었다.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흑석11재 정비 추진구역에 재개발하는 '써밋더힐'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최고 16층, 30개 동, 총 151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4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면적별로는 ▲39㎡A 6가구 ▲39㎡C 2가구 ▲49㎡A 3가구 ▲49㎡B 4가구 ▲59㎡A 194가구 ▲59㎡B 8가구 ▲59㎡C 49가구 ▲59㎡D 102가구 ▲59㎡E 16가구 ▲59㎡F 17가구 ▲84㎡A 21가구 ▲84㎡C 10가구다.

입지 강점으로는 교통과 자연환경이 꼽힌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한 정거장 거리인 동작역에서는 4·9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여의도와 강남, 용산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모두 가능한 위치다.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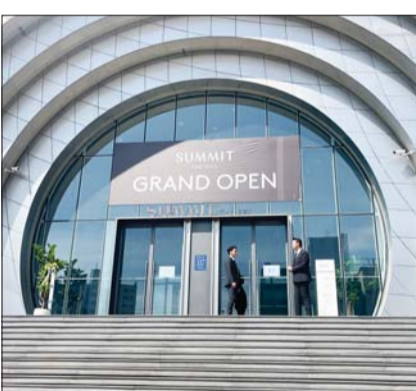
견본주택에 마련된 '써밋더힐' 모형도.

많은 전용 59㎡A 타입 유닛 하나만 마련됐다. 천장고는 2.4m로 설계됐으며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다. 현관에 들어서면 자녀방이 먼저 보이고, 오른쪽으로 연결된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는 형태다. 폭이 넓게 설계돼 개방감이 느껴졌지만 그자 형태 주방은 다소 좁게 느껴지기도 했다.

현관에는 신발장 특화 옵션과 유리도어 디자인, 자동 중문을 유상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 침실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면 불박이장, 파우더룸이 함께 제공된다. 옵션이 적용된 유닛 내부 안방 불박이장과 파우더룸, 욕실로 이어지는 공간은 넓게 설계됐다. 간접조명과 옛지등, 우물천장 등을 활용해 고급화에도 공을 들인 모습이었다.

반면 수납공간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방문객들은 "주방과 바로 붙어 있는 구조라 냄새나 환기 부분이 신경 쓰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써밋더힐의 분양가는 국민평형 기준 30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는 ▲39㎡ 12억2450만원 ▲49㎡ 16억7510만원 ▲59㎡ 22억4700만



'써밋더힐' 견본주택 입구. /성채리 인턴기자

원 ▲84㎡ 29억7820만원이다.

상도동에 사는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유닛가 마련된 평형은 생각보다 작게 느껴진다"며 "84㎡ 타입이 궁금한데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B씨는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신축 공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일단 서울에 나오는 청약은 넣어보려 한다"며 "84㎡보다는 작은 평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써밋더힐은 고도 제한을 받아 최고층이 16층으로 지어졌다. 이에 한강 조망이 제한적이고 신축 최고 답답하게 느껴진

다는 반응도 있었다.

분양 관계자는 "고층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일반분양보다는 조합원 세대가 많다"면서도 "모든 입주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까지 직선거리로 약 140m 수준이고, 여의도·용산·강남 접근성이 모두 가능한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흑석동 부동산 현장에서는 입지 가치와 분양가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흑석역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출 규제 투자가 목적보다는 살거주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를 만큼 분양가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흑석동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84㎡의 시세는 현재 3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의 경우 30억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크게 올라서 망설이는 수요자가 많다"면서도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에 넣어보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흑석동 입지에 대해 "생활 인프라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여의도와 용산, 강남까지 접근 가능한 교통은 확실한 강점"이라며 "인원 가능성은 높게 본다"고 말했다.

써밋더힐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해당 청약 제한 10년, 전매 제한은 3년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청약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이며 정당 계약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진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호반건설 면목역 6차 모아타운 조감도. /호반건설

## 호반건설 면목역 6의3·4·5구역 1400세대 브랜드타운

호반건설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한다.

호반건설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일원 '면목역6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수주한 면목역6의4·5구역과 연계해 총 1391세대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 조성에 본격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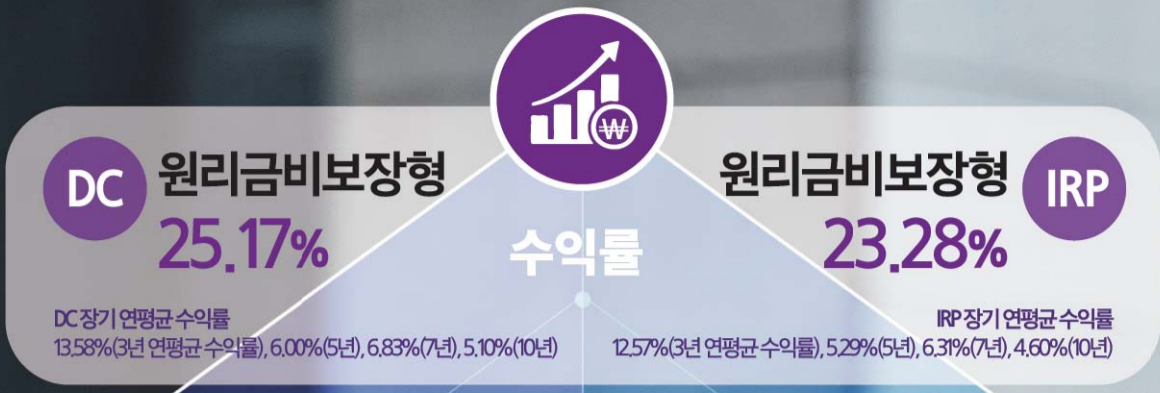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단순 정비사업 수준을 넘어 면목역 일대를 대규모 브랜드타운 주거지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다. 각 사업지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단지 간 경계를 연결해 조경·커뮤니티·보행 동선을 통합 구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호반건설은 면목역 6차 모아타운에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외관에는 고급 유리 마감 디자인과 수직형 입면 설계,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세련미와 상징성을 높일 예정이다.

면목동 일대에 조성하는 모아타운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 접근성이 뛰어나다. /안성미 기자 smahn1@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금융 연금력



시장점유율

안정성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퇴직연금에 필요한 능력

# 삼성생명 퇴직연금

전문성

고객편의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그냥 돈이 아니니까  
수익률과 안정성, 전문성과 고객편의까지  
퇴직연금이 갖춰야 할 모든 능력  
튼튼한 삼성생명에 있습니다.



삼성생명 IRP 가입하기

꼭 알아두세요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운용성과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립금 운용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원리금비보장형이란 원금과 이자(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6-03797호 (2026-04-27 ~ 2027-04-26)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

# 삼성전자, 스마트폰·TV 점유율 1위 '프리미엄 경험·AS 경쟁력' 통했다

중남미 등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  
2분기 신규 A시리즈 출시 예정  
1~3월 글로벌 TV 출하량 증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 둔화와 메모리 가격 급등 등 악조건 속에서도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출하량 및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1290만대를 출하하며 점유율 37%로 1위를 기록했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점유율이다. 중남미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같은 기간 3% 성장한 3480만대를 기록했다.

옴디아는 "프리미엄 수요가 500달러 이상 구간에서 견고하게 유지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 포트폴리오로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중동 스마트폰 시장은 소비심리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메모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1100만대를 기록했지만 삼성전자는 점유율 34%로 선두를 지켰다.

동남아 시장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2160만대를 기록하는 등 수



갤럭시 S26 시리즈.

요 둔화가 이어졌지만 삼성전자는 460만대를 출하하며 점유율 21%로 1위를 차지했다. 옴디아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견조한 초기 판매와 A시리즈 판매 확대가 점유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ASP)가 34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할 정도로 가격 부담이 커졌지만, 삼성전자는 브랜드 투자와 채널 확장을 지속하며 점유율을 확대했다.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이어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3월 글로벌 TV 출하량은 471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글로벌 TV 출하량이 증가한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분기는 전통적인 TV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TV 제조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출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보상판매 보조금 축소로 실제 소비 수요는 제한적이었다.

업체별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19.1%(900만대)로 1위를 기록했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검증된 브랜드와 프리미엄 경험, 사후서비스(AS)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몰리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는 신규 A시리즈 출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on@metroseoul.co.kr



metro

## LG 올레드 TV, 14개국 소비자매체 호평

LG전자 화질 등 시청경험 고평가

LG전자의 올레드 TV가 글로벌 14개국의 소비자매체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점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화질과 HDR 성능, 시야각은 물론 사운드와 사용자 경험까지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OLED TV 강자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매체들은 LG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과 몰입감 있는 사운드 등 뛰어난 시청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만의 정확한 색 재현력, 탁월한 HDR 성능, 넓은 시야각 등 프리미엄 TV의 핵심 요소들이 고르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LG 올레드 TV는 프리미엄 TV 주요 시장인 북미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최근 평가에서 LG 올레드 TV는 70형 이상, 65형, 55~60형, 46~52형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특히 65형 LG 올레드 에보 AI의 경우 "HDR 성능이 매우 인상적이고 어떤 자리에서도 화질 저하가 거의 없는 뛰어난 시야각을 갖췄다"고 호평했다.

OLED TV 최대 시장이자 대표적인 프리미엄 TV 시장인 유럽의 주요 소비자매체에서도 LG 올레드 TV는 최고의 TV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소비자매체 '위치'는 65형 LG 올레드 에보 AI에 최

고점을 주고 "특히 화질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고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현존 최고 수준의 OLED TV 중 하나로 압도적인 4K 화질과 뛰어난 HDR 표현,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색 표현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포르투갈 소비자매체 '데코 프로테스테(DECOPROTESTE)'는 55형 LG 올레드 에보 AI에 대해 "동급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춘 TV로 실질적인 단점이 없다"며 "뛰어난 화질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선명한 사운드, 낮은 전력 소비까지 갖춘 완성도 높은 제품"이라고 극찬하며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북미와 유럽 외에도 호주 소비자매체 '초이스(CHOICE)'는 65형 LG 올레드 에보 AI의 우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테일과 균형감이 뛰어난 화질, 섬세한 음질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최고점을 줬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49.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각각 50% 인덱스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TV 시장 내 OLED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장 이충환 부사장은 "LG 올레드 TV가 최고의 TV라는 것을 각국 소비자매체들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입증했으며, 앞선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中 전고체 배터리 투자 확대... 韓 기술우위 시험대

中, 정부 주도 세계·자본력 총공세  
韓, R&D 세액공제 등 구조적 격차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내 배터리 3사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금과 CATL·간펑리튬 등 대형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를 앞세워 상용화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자본력과 세계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앞선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K-배터리의 기술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2027~2028년경 전고체 배터리 소규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SDI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삼성SDI는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2023년부터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고객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피지컬 AI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상용화하고 전기차용 각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적용처를 넓히고 있다.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연구개발비로 435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3사 중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



삼성SDI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 샘플

21.8% 증가한 수치다.

삼성SDI가 초기 양산 일정에서 앞서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기술 노선과 적용처를 세분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용 흑연계 전고체 배터리를 2029년, 휴머노이드 로봇과 UAM용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 상용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량 생산 안정성이 중요한 전기차에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정 연계성이 높은 흑연계 방식을, 에너지 밀도 요구가 큰 로봇·항공 분야에는 무음극계 기술을 각각 적용하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연구개발비는 34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SK온은 대전 유성구 미래기술원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및 핵심 소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중국 최대 리튬 메탈 제조업체 간펑리튬은 최근 에너지 밀도 500 Wh/kg의 10Ah 리튬 금속 기반 전고체 배터리 소규모 생산을 세계 최초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도 중·방전 수명 1100회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도 전고체 배터리 전담 R&D 인력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7년 소량 생산을 거쳐 2030년 이후 본격 양산·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CATL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221억 위안(약 4조7000억원)으로 한국 배터리 3사 합산(3조605억원)보다 1조6000억원 이상 많다. 중국 정부의 세계 지원도 더해져 R&D 비용의 200%를 과세 소득에서 추가 공제한다. 반면 한국 일반 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 수준에 그쳐 구조적 격차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kWh당 50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 20년가량 걸렸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도 경제성을 갖춘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용화 경험을 먼저 축적하면 K-배터리가 전고체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디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피스 에디션.

## MINI 코리아, 전기차 판매 3배 '쎄쎄'

라인업 확대·뛰어난 상품성 주요

MINI 코리아가 전기차 고객 경험 확대와 충전 인프라 강화 등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앞세워 국내 전동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MINI 코리아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809대의 순수전기차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295대)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판매량 가운데 순수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MINI의 전동화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MINI는 2025년 전 세계 시장에서 총 10만 5535대의 순수전기차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무려 88%가량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MINI는 브랜드 고유의 개성과 주행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동화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전기차 라인업 강화와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MINI 코리아는 지난해 3월 '디올-일

렉트릭 MINI 패밀리' 3종을 출시하며 쿠퍼, 에이스맨, 컨트리맨으로 이어지는 순수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했다. MINI 고유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코닉 디자인과 각 모델 특성에 최적화된 전동화 시스템, 혁신적인 인포테인먼트 기능 등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며 전기차 판매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디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피스 에디션', 'MINI 1965 빅토리 에디션' 등 다양한 에디션 모델을 선보인다.

MINI 코리아는 제품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전기차 경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선보인 전기차 시승 프로그램 'MINIBEV 멤버십'은 보다 많은 고객이 MINI 순수전기차만의 프리미엄 가치와 경쾌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MINI 코리아는 BMW 그룹 코리아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3030기의 충전기를 구축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누적 4000기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성수동서 키운 국산 의료기기... FDA 뚫고 96개국 수출

(미국 식품의약국)

## 혁신기업 돋보기

### 쉬엔비 강 선 영 대표

고주파·플라즈마 장비 美 FDA 6관왕  
지난해 매출 412억 중 80% 해외 달성  
“아름답고 건강하게” 신념으로 제조  
브라질 중심 남미 시장 추가 공략  
K-메디컬 선도기업 도약 목표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에는 순수 국산 기술로 피부 미용의 료기기를 만들어 전 세계 96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 쉬엔비(SHENB)가 있다. 쉬엔비가 연구개발을 통해 선보인 고주파(RF), 플라즈마, 초음파 장비 등 6종의 대표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412억원의 매출액 가운데 80% 정도인 332억원을 미국, 러시아, 대만, 홍콩, 일본, 태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했다. 2023년 무역의 날에는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오는 2029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 'K-메디컬 기업' 쉬엔비의 면면들이다.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자. 건강하게 만들자는 신념으로 의료기기를 만들었다. 초창기 한국산 장비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국내외 병원에 있는 우리 장비를 볼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

사회복지사를 하다 99년 당시 쉬엔비의 전신인 제이스 메디칼을 창업한 강선영 대표(사진)의 말이다. 첫 해 1000만원 수준이었던 매출은 창업 26년만에



강선영 쉬엔비 대표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본사 공장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사이 회사는 경기 수위와 성남을 거쳐 지금의 성수동에 터를 잡고 지상 11층 규모의 '쉬엔비 타워'까지 세웠다.

강 대표는 창업을 하자마자 한국보다 해외를 겨냥했다. 홍콩이 첫 타깃이었다. 그러다 미국 시장이 눈에 들어왔다. “남들이 중국을 갈때 나는 미국을 갔다. 미국에 대한 로망도 있었지만 FDA 인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미국을 뚫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미국서 임상을 시작했는데 2016년에서야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5년이 걸렸다. 승인을 받고서야 미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첫 승인을 받은 제품은 비바체(vivace)다. 비바체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조직을 응고시키는데 사용한다. 비바체만 전 세계 64개국에 팔려나갔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쉬엔비는 이후 미국 FDA로부터 '서니(Sunny)'·'버추(VIRTUE)'(고주파), '플라두오(PLADUO)'(플라즈마), 'AF 레이저'(레이저), '다이아코어(DIACORE)'(전자자장) 등 다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으며 'FDA 6관왕'이 됐다.

“미국은 의사가 아니어도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시장도 넓다. FDA 승인을 받아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선 현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FDA 승인은 마케팅 정도다. 현재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나라는 시장도 크고 K-뷰티에 열광적인 브라질이다.”

강 대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시장도 차례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비바체의 아틀라스로 표피부터 진피까지 정밀하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쉬엔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주파수와 쿨링 시스템으로 피부 통증을 낮추는 버추(VIRTUE), 그리고 다양한 피부층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여러 부위 시술이 가능한 고주파 의료기기 서니(Sunny)다. Sunny는 강 대표의 영문 이름이기도 하다.

특히 강 대표는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의사들과 협업해 논문을 통해 기술력과 제품 효과를 알려나가는 데 주력했다.

쉬엔비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OEM, ODM 요청도 많았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기술을 팔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성수동에서 R&D부터 제조, 판매 등을 모두 다 하는 제조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한때는 마곡, 오송(충북), 원주(강원도) 등으로 옮길까도 생각했지만 (이전으로) 직원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만큼 성

수동에서 제일 기억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소지었다.

쉬엔비는 현재 전체 110여 명의 임직원 가운데 R&D 인력이 20% 정도다. 이들은 개발 1·2·3팀과 소프트웨어팀, 기구개발팀으로 나뉘어 매년 신제품 1종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쿨링 시스템(ACS), 통합 펄스 고주파 시스템(IPRS), 통합 에너지 조절 시스템(IECS), 최소 깊이 조절 시스템 등 28건 이상의 지식재산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 벤처 인증 등도 받았다.

강 대표는 “우리는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게 철학이다. 기술·아름다움·사람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K-메디컬테크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韓 도산안창호함 호평... 캐나다 60조 수주전 청신호

캐나다 승조원, 성능·운용성 긍정 평가  
韓 잠수함 사상 첫 태평양 횡단 성공  
최대 12척·60조 규모 사업 결정 임박  
독일 TKMS와 최종 경쟁 구도 주목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의 최종 결정을 한달여 앞두고 한국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에 대한 현지 평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 승조원들이 실제 항해 과정에서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막판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더글로

브앤메일과 공영방송 CBC 등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 하와이에서 도산안창호함에 합류해 23일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까지 이동한 캐나다 해군 제이크 디슨 하사는 한국 잠수함을 두고 “1999년식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산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함께 탑승한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도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과 비교해 녹이 거의 보이지 않고 내부 공간이 넓었다며 최신형 잠수함을 경험하면서 새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더 분명히 느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은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해 호위함 대전함과 함께 지난 3월 진해 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약 1만4000km를 항해하며 한국 해군 잠수함 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

캐나다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지·보수·정비(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98년 영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4척이 전부다. 데이비드 패켈 캐나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새 잠수함 도입 시점에 대해 “어제라도 필요했다”고 말하며 전력 보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최종 후보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제안한 KSS-III 계열 잠수함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타입 212CD로 좁혀진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입항과 현지 승조원들의 긍정적 평가가 한국 측 제안의 실력 경쟁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벤처기업협회 초기벤처 가치 재조명 평가체계 구축 추진

벤처기업협회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손잡고 초기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26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협약을 맺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창업 초기 혁신 기업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전방위적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스타트업 전용 기업가치평가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데이터베이스(DB) 조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성장잠재력 분석 등 심도 있는 공동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벤처협회의 방대한 현장 네트워크와 KODATA의 데이터 분석력을 결합해 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정부 정책 연구, 진성 회원사 발굴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벤처협회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벤처협회 회원사는 KODATA의 신용평가 및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격적인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중동 피해 中 4534억 지원

국민·하나와 포용금융 협약  
수출입 기업 자금난 완화 초점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하나는행과 함께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26일 기보에 따르면 국민·하나은행과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

외 정세 불안으로 환율·유가가 상승하고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국민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 보증료지원금 20억원과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총 453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김승호 기자

## 중견기업 AI 전환, 스타트업 기술로 돕는다

중기부,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모집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은 중견기업의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전환, 신사업 진출 등 협업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개사에서 24개사로 확대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실질적인 협업 성과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 현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로 신사업 진출, 디지털 전환,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혁신기술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딥시크, 15.6조 투자유치 추진... “단기 수익보다 AGI 우선”

(인공일반지능)

## 오늘 AI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 지속과 AGI 달성 장기 목표로 제시  
투자유치 시 기업가치 450억弗  
에이전트 AI 영역으로 사업 확장



딥시크가 약 700억 위안(약 15.6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능AI

중국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도 단기 수익화보다 인공일반지능(AGI) 연구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소스 AI 모델을 앞세워 급부상한 딥시크가 기술 개발 중심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 ◆ 딥시크 “수익보다 AGI 우선”...100억달러 투자 추진

25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딥시크가 약 700억 위안(약 15.6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단기 상업화보다 획기적인 AI 연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 창업자량원평은 투자자 회의에서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AGI 달성을 장기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매출 확대보다 기술 한계 돌파와 모델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딥시크

기업가치는 약 45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자 후보군으로는 중국 국가 인공지능 산업 투자 펀드와 텐센트홀딩스, IDG캐피탈 등이 언급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조성한 국가 AI 투자 펀드가 참여를 검토하는 점도 시장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미국 오픈AI에 대응할 전략 AI 기

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딥시크는 단순 서비스형 AI 기업보다 기술 연구 조직에 가까운 방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라며 “중국 정부 자금까지 결합될 경우 컴퓨팅 인프라와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공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 오픈소스 앞세운 중국 AI...미국과 다른 경쟁 구도

딥시크는 지난해 저비용 AI 모델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업계 주목을 받았다. 이후 중국 오픈소스 AI 생태계 확대를 이끄는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재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을 기반으로 개발자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라바버의 ‘큐원(Qwen)’ 역시 개방형 모델 전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딥시크 전략이 미국 빅테크 중심 AI 경쟁 구도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미국 기업들이 수익 모

델 확보와 기업공개(IPO) 가능성 등을 동시에 검토하는 반면, 중국은 모델 성능과 생태계 확대, AGI 주도권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컴퓨팅 인프라 투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수익성 압박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 역시 신규 수익 모델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딥시크는 최근 에이전트형 AI 영역으로도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 AI 모델 개발을 넘어 실제 업무 자동화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아시아 AI 모델 시장은 토큰 기반 경제 구조로 이동하면서 미국과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낮은 전력 비용과 대규모 개발자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네이버, 배민 인수설... 플랫폼 재편 가능성

네이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가능성 완전히 닫지 않은 입장’ 해석  
기존 커머스·지도·멤버십 연계 전망



우아한 형제들 사옥. /우아한형제들

네이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커머스·멤버십·지도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 ◆ 네이버 “확정된 내용 없다”...시장선 가능성 주목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컨소시엄 형태로 우아한형제들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9일 풍문 또는 보도 해명 공시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인수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

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수준의 입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달리버리하여로 DH는 포트폴리오와 자본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DH가 재무 부담 완화와 사업 재편 차원에서 배민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버가 최근 DH 지분 19.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 점도 시장 관심을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 ◆ 커머스·지도·멤버십 시너지 가능성 거론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배달 플랫폼 시장과 연결될 경우 기존 커머스·지도·멤버십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중심으로 쇼핑·예약·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역 기반 서비스와 음식점 검색, 주문 기능 등이 결합될 경우 플랫폼 체류시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실제 인수가 추진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네이버가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경쟁 제한성 여부를 둘러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자체에는 업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방송 중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LG U+, 월드컵 중계 위해 전용회선 구축

해저케이블 1.4만km 6원화  
‘3단계 대비 시스템’ 한층 강화

LG유플러스가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지연 없는 중계를 위해 전용 회선 구축에 나선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약 1만4000km 구간의 해저케이블을 6원화로 다중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점검 체계도 가동해 철나의 끊김도 없는 무결점 중계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 11일 2026 FIFA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열기를 끊김 없이 전달하기 위해 국제 방송 중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북중미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전용 방송 중계 회선을 구축해 국내 주관방송사에 제공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의 국내 중계도 담당해 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장거리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끊김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에 적용해 온 ‘3단계 대비 시스템’을 이번 월드컵 중계에 맞춰 한층 강화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2026 FIFA 월드컵 국제방송센터(IBC)가 위치한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국내 방송중계 거점까지 약 1만4000km 내 해저케이블 경로를 6원화한다.

구체적으로 달러스에서 LG유플러스L

A PoP(접속거점)를 거쳐 태평양을 지나 LG유플러스 안양사육까지 이어지는 경로에는 4개 회선, 달러스에서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및 LA를 거쳐 태평양을 통과한 뒤 LG유플러스 방배사육으로 연결되는 경로에 2개 회선을 구축했다. 중동 전선으로 인한 변수를 피하기 위해 대서양-인도양을 통과하는 전송 경로는 구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상 전송 전 과정에 히트리스 프로텍션 기술을 적용한다. 이 기술은 모든 회선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동시에 수신해 실시간으로 패킷을 분석하고, 한쪽 회선에서 이상이 감지될 경우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해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화면 끊김을 최소화한다.

또 LG유플러스는 해저케이블 회선 전반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지 인터넷망을 활용한 SRT(스트리밍 프로토콜 가운데 하나로 영상을 전송하는 체계도 준비한다.

현지 인터넷망까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MNG(이동통신망을 활용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송 중계 방식) 장비를 활용한 무선 전송 시스템도 가동한다. 약 1kg 무게의 휴대형 네트워크 장비로 현지 이동통신망을 연결해 긴급 상황에서도 필요한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2026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방송중계·IPTV 등 유선플랫폼 서비스의 컨트롤러인 안양사육에서 통신 인프라 전 구간에 대해 24시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조민선 기자 msjo@

# 엔트로픽 ‘미토스’, 전 세계 소프트웨어서 취약점 1만개 찾아

보안 프로젝트 투입 한 달 만의 성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의 미공개 최신 AI 모델이 글로벌 보안 프로젝트 투입 한 달 만에 전 세계 핵심 인프라 소프트웨어(SW)에서 1만개가 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무더기로 발굴해 냈다.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의 강력한 무기로 악용되는 것보다 빠르게 전 세계 주요 전산시스템의 보안 구멍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메우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동 방어 전선이 첫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자사가 주도하는 글로벌 AI 보안 공동 프로젝트

‘프로젝트 글래스wing’의 출범 한 달 차 초기 성과 보고서를 지난 2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토스 프리뷰는 프로젝트 가동 한 달 만에 이들 주요 시스템에서 1만개 이상의 ‘심각함(High)’ 및 ‘치명적(Critical)’ 등급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다. 이는 보안 업계에서 즉각적인 해킹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준의 결함들을 의미한다.

글래스wing에 참여한 대다수 빅테크 파트너사들은 미토스 프리뷰를 도입한 이후 자사 SW 내에서 각각 수백개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식별해 냈으며, 버그 탐지 속도가 기존 대비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전했다.

다만 역설적으로 AI의 취약점 발견 속도가 인간의 보안 조치 역량을 아득히 초월하면서 사이버 보안 생태계가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직면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기존 SW 보안은 새로운 취약점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기술적 한계였으나, 이제는 AI가 며칠 만에 수천 수만개의 치명적 버그를 쏟아내면서 인간 개발자가 이를 검증·고지하고, 패치 코드를 짜서 배포하는 인간의 물리적 시간이 병목 구간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AI 모델의 사이버 보안 역량이 일반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충분한 방어적 안전장치 없이 출시될 경우 전 세계 소프트웨어 환경이 붕괴할 수준의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뉴스시

# 美 국채금리 급등에 흔들리는 증시... 36조 빚투 '경고등'

美 국채금리 연 5.20%까지 치솟아 국내 빚투 규모 36조4724억 달해 변동성 확대 속 투자 주의 필요

주가는 '팔천피(코스피 8000 포인트)'를 넘어 '만피(코스피 1만 포인트)'를 향해 가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증시를 떠받쳐온 저금리 환경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나면서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장중 연 5.20%까지 치솟으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 4.69%까지 상승했다. 일본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03%로 사상 최고치, 영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5.64%로 27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쉽게 말해 국채금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뉴시스

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국채는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함께 상승하는 구조다.

### ◆ 왜 갑자기 국채금리가 뛰었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물가 불안과 재정 악화 우려다.

우선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

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40% 이상 반영하고 있다.

재정 적자 확대도 악재다. 미국 정부부채는 GDP 대비 123.9% 수준에서 향후

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역시 추가 재정지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 각국도 국방비와 에너지 지원금 확대에 나서면서 국제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관찮은가"라는 의문이 커지면서 국채를 팔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 36조 빚투, 금리인상 땀 부담 커진다 이 같은 금리 급등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특히 민감한 이유는 빚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용자잔고는 36조4724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신용잔고는 26조364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빚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신용용자 잔고는 4조2751억원, SK하이닉스는 3조437억원으로 두 종목 합계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거래용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만큼 일정 기간 안에 빚을 갚아야 한다. 주가가 급락해

보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실제로 코스피가 8000선을 찍은 뒤 조정을 받았던 지난 18~20일 시황 동안 반대매매 금액은 3000억원을 넘었다.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도 66.97까지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빚투 자체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 증시 상승이 기업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거나 연준의 긴축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증시 역시 단기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을 비롯해 순매수가 많이 나오면서 금리에 하방 압력을 줬다"며 "다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첫 40조 돌파

삼성·하이닉스, 대형 반도체주 쏠림 중소형주 거래 위축... 증시 손바뀜 둔화

이달 코스피가 고공행진 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8조 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 2월 기록한 32조 2338억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경신했다. 이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6일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7거래일 만인 지난 15일 장중 8000선 고지마져 밟은 바 있다. 이후 일부 조정을 거쳤으나 다시 반등세로 전환, 지난 22일 종가(7847.71)는 지난달 말 대비 19% 급등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거래대금이 급증했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평균 거래대금 총합은 20조 5690억원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의 43%를 차지했다.

AI(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져 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도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시장 전체 거래량은 줄었는데, 자금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된 영향이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7억1680만주로 지난달(9억 4718만주) 대비 24% 줄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고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거래대금이 불어난 반면, 중소형주로는 매기가 확산하지 못한 모습이다. 대형주로 거래가 쏠리면서 증시의 손

바뀜'도 둔화했다. 매수세가 일부 종목에 집중되며 시장 전반의 거래 활력이 떨어진 탓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1.15%로 전월(1.49%) 대비 23% 감소했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손바뀜)가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다.

맹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 공급자(LP)는 헤지 목적상 지수 구성 종목들을 비중이 맞춰 매수하게 된다"며 "ETF 중심의 패시브 자금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형주 중심의 패시브 자금 유입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확대 전략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 서학개미, AI 집중 매수 속 안전자산도 병행

### 해외주식 Click

'美 단기채' 매수... 변동성 대비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에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가운데 엔비디아·알파벳 등 기술주 매수도 이어졌다. 다만 미국 초단기 국채를 함께 담으며 안전판도 마련하는 모습이다. AI 성장주에 대한 낙관론은 유지하되 안전자산도 병행하는 '공격과 방어' 전략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5월 18~22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한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3X 상장지수펀드(ETF)'(SOXL)로 1억7313만달러를 사들였다. 통상 레버리지 ETF는 단기 방향성에 베팅하는 성격

이 강해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손실 폭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AI 투자 확대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이 맞물리면서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별 종목 매수도 AI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엔비디아를 9081만달러 순매수했으며 알파벳A도 4978만달러 담았다.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세레브라스 시스템즈(5876만달러) 역시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장 첫날 68% 급등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 외 차세대 AI 반도체 기업으로도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레브라스의 상장은 2019년 우버 이후 최대 흥행한 미국 기술기업 기업 공개(IPO)라고 평가된다. /신하은 기자

## 코스콤-핑거, 금융투자업권 AX사업 맞손

원장 데이터 역량·AI 기술력 결합

코스콤과 핑거가 금융투자업권 AI 전환(AX)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업계의 인공지능(AI) 전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스콤의 원장 및 투자정보 인프라와 핑거의 AI 기술력을 결합해 금융투자업권 맞춤형 AX 서비스를 공동 개발·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투자업권 데이터 기반 AX 사업 공동 기획·개

발 및 기술 교류 ▲금융투자업권 대상 공동 마케팅 및 영업 ▲AI 기술의 금융투자업권 적용 및 고도화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코스콤은 약 50년간 축적한 금융투자 원장 데이터 운영 역량과 핑거의 AI 기술을 결합해 금융투자업권의 AI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원장 서비스 중심의 사업 구조를 AI 기반 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해 업무 혁신에 나선 방침이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중 공동 서비스 기



지난 21일 코스콤 본사에서 정기우 코스콤 금융사업본부장(오른쪽)과 서영준 핑거 본부장이 금융투자업권 AI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회에 착수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미래에셋운용, 우주 ETF '1조클럽' 입성

국내 패시브 ETF 최단기간 기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우주테크 ETF(상장지수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미국우주테크 ETF' 순자산은 1조31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ETF는 지난 달 14일 300억원 규모로 상장한 뒤 24영업일 만에 순자산 1조원을 넘어 국내 상장 패시브형 ETF 중 최단기간 1조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난 달 29일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약 2주 만에 규모를 두 배



이상 카우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국우주테크 ETF'는 상장 이후 국내 상장 미국 우주 테마 ETF 개인 순매수 1조 14억원 중 7762억원이 유입되며, 관련 개인 순매수 자금의 약 78%가 해당 상품에 집중됐다. /허정윤 기자

# K-푸드, 우즈베크 최대 유통망 타고 중앙아시아 공략 본격화

대사관·코트라·수은 'K-유통' 결실  
우즈베크 1위 까르진카와 MOU 체결  
라면·고추장 등 20여 품목 확대  
타슈켄트 핵심 매장 3곳에 우선 설치

중앙아시아의 미식 허브이자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유통망에 대한민국 식품 전용 코너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 재외공관의 외교력과 공공기관의 금융·마케팅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뤄낸 'K-유통' 수출지원의 쾌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지난 20일 우즈베크 1위 유통업체 까르진카(Korzinka)와 한국 식품 전용 코너 설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까르진카'는 1996년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유통체인으로, 현재 우즈베크 전역에 약 16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그간 까르진카가 취급해 온 한국 식품은 라면 2~3종과 초코파이 정도로 구색이 매우 적었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즈베크 1위 유통체인인 '까르진카(Korzinka)'와 한국 식품 전용 코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및 '까르진카(Korzinka)'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코트라

나, 이번 K-푸드 전용 코너 신설을 통해 라면, 고추장, 참기름, 음료 등 20여 개 품목으로 취급 상품이 대폭 확대된다.

까르진카 측은 이번 한국 식품 전용 코너 신설로 기존 라면 품목에서만 약 70% 성장한 15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하는 제품의 수입 규모도 대략 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우즈푸드(Uz food) 2026' 전시회를 계기로 추진된 수출 마케팅 활동에 우리 정부의 국가 발전 비전인 'K-이니셔티브'가 더해져 완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가 K-푸드 현지 진출의 초석을 다진 후, 대사관이 자파르 하시모프(Zafar Khachimov) 까르진카 대표와의 면담을 통

해 전용 코너 설치를 직접 제안했다. 여기에 수은이 한국 식품 수입에 필요한 금융협력을 적극 뒷받침하며 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식품 수출액이 2021년 640만 달러에서 2025년 1870만 달러로 5년 새 약 3배(190%) 가량 급성장할 만큼 K-푸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국가다. 코트라는 이번 MOU를 기

반으로 유통 인구가 많은 수도 타슈켄트 내 3개 핵심 매장에 전용 코너를 우선 설치한 뒤, 향후 우즈베크 전역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농식품부와 코트라가 협력해 전 세계 10개 전략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농식품 시장개척' 사업의 일환이다.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사는 "농식품부와 코트라가 현지 수출 기반을 다진 후 대사관이 주춧돌을 놓고, 수은이 받침돌이 되는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현지 'K-이니셔티브' 구현 우수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이제 재외공관은 기존 G2G의 역할을 넘어 G2B 수출 최일선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민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장 역시 "이번 K-푸드 전용 코너를 시작으로 한국 식품의 중앙아 시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MIT·프라운호퍼 손잡고 제조 AI 혁신 시동

KIAT, M.AX 공동연구 사업 공고  
MIT·예일·프라운호퍼 등 8곳 참여  
AI 팩토리·휴머노이드 분야 추진  
제조서비스·바이오 과제도 포함

국내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들이 손을 잡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공정을 전환하려는 국내 제조 기업의 수요와 세계적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을 상호 연계하는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M.AX 공동연구)'을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는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 공정과 운영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로 선정된 미

국의 MIT,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를 비롯해 독일 프라운호퍼,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UCL 등 세계 최고 권위의 8개 해외 기관이 참여한다.

산업통상부와 KIAT는 기술협력 수요조사와 전문 기획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인공지능 팩토리, 휴머노이드, 제조서비스, 바이오 등 4개 분야에서 총 9개의 신규 과제를 도출했다. 각 과제는 AI 자율제조 의사결정 수준과 에너지 절감률 등에서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목표를 지향하며,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글로벌 현장 및 테스트베드 실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에 투입된 다양한 로봇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적응형 멀티 AI 에이전트 통합 제어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작업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타 업종과 공정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제조공정과 설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품질 및 에너지 운영을 최적화하는 'AI 팩토리 기술', 석유화학 신소재 개발 전 과정을 자율실험실과 연계해 자동화하는 'AI 제조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전원종 KIAT 원장은 "국제기술협력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 공정, 설비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제조 인공지능전환(M.AX)의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규 과제 신청 접수 마감은 7월 15일이며, 상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 상단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남부발전·대한상의, 산업계 탄소중립 맞손

온실가스 감축·탄소시장 정보 교류

한국남부발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과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기조에 발맞춰 마련됐다. 에너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앞당기고 민간 협력 기반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분야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전개한다. 주요 협력 항목은 ▲산업계 탄소중립과 녹색대전환 관련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탄소시장 정보 교류 ▲신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저장(CCU/S) 등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등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양 기관은 이에 대응해 'AI 활용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새로운 산업 성장 전략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탄소 감축 수요와 기술적 요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기후테크 기반의 신사업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종=한용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 ILO와 사회보장 협력 넓힌다

한국 산재보험 운영 경험 공유

근로복지공단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ILO 아태지역사무소 대표단과 양자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가오리 나카무라-오사카 ILO 아태지역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해 ▲재활·직업복귀 지원체계 고도화 ▲디지털 기반 산재보험 행정 혁신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의 선진적인 산재보험 운영 경험과 재활 인프라, 디지털 행정 역량 등 현장 중심의 강점을 소개했다. 이에 ILO 측은 국제 기준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향후 양 기관은 한-ILO 협력사업, 초청연수,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산재보험 운영 경험과 ILO의 국제적 정책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아태지역 국가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2년 만에 본격 재개

25~27일 인도 뉴델리서 개최  
양국 대표단 60여 명 협상 참여  
2022년 중단 뒤 공식 논의 재개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튼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마침내 다시 시작됐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지 2년 만이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5일~27일까지 사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10년 CEPA 원협정이 발효된 이후 변화된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하고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달기비에서 열린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선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2년 이후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정체됐던 협상은 올해 초부터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정상순방 당시 재개 합의 공동선언

문을 발표하면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이번 개선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상공부 국장을 각 각 수석대표로 해 총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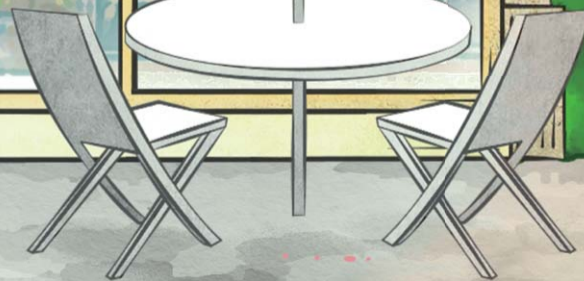
새로운 이야기, 변함없는 따뜻함

뮤직 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1

## Always

24  
Times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김하나 | 연출 정범철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조연출 박수연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극발전소301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 경북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운영... 지역기업 AX 종합지원

재직자 대상 AI 기반 직무훈련 지역 특화 AX 훈련모델 개발 추진 "전문인력 통해 제조 AX 선도할 것"

경북도가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지원하기 위해 AI·로봇 융합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에서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구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역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AX 대전환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 대상 AI 기반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총 295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교육시설이다. 2022년 완공 이후 연



경북도와 관계기관이 21일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에서 열린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 1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로봇 기반 실습 장비 120여 대를 활용한 현장형 교육이 가능해 교육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60개 자체 교육과정과 4개 민간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도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대경권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면서 지역 기업의 AX 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됐다.

센터는 ▲기업 AI 수준 진단 ▲기업

맞춤형 AX 컨설팅 ▲제조 AX 전략 세미나 ▲직무 적용 AI·로봇 전문교육 ▲현장 문제 해결형(PBL) 훈련 개발 등 산업현장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연간 180명 이상의 재직자에게 AI·로봇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력 산업 제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역 특화 AX 표준 훈련 모델을 개발해 지역 내 AX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

를 계기로 AX 전환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늘어나는 AI·로봇 전문인력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결국 기술을 가진 인재"라며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력 제조 산업이 필요로 하는 AI·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제조 AX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 지역 이모저모

### 경북도 소담스퀘어 공모사업 선정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용원이 주관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비 42억원 등 74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상공회의소에 전용면적 152평 규모로 올해 '소담스퀘어 경북'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곳엔 스튜디오와 교육장, 커뮤니티 라운지 등이 들어서며, 운영은 (사)지역과소셜비즈가 맡으며,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로 추진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 완도군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전남 완도군은 총사업비 700억원을 투입해 상습침수와 해일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일읍 동송지구와 완도읍 1부두, 신지면 동고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높은 조위와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만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울산시

#### '고령자 이용권' 정책 성과

울산시가 고령자들이 시중보다 싸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확대한 이후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4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 횟수가 1만 335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기본요금 1000원(3km 기준), 최대 4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 충남도, 선거인 185만 7239명 확정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 대비 5만 4143명 증가 50대 19% 차지... 천안시 57만명 최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는 충남 지역 최종 선거인 수가 185만 723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인 수(180만 3096명)보다 5만 4143명(3.0%)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57만 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30만 2051명), 서산시(14만 838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19.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만 18~19세인 10대 최연소 유권자는 4만 1028명으로 나타났다.

충남 도민들은 지난 23일부터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전입신고 시기에 따라 투표소 위치가 달라지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반면 5월 13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유권자는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로 가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절차"라며 "소중한 한 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명부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준완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충남도는 선거 기간 중 오해를 살 수 있는 공직자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부산시, 31일 대규모 해양환경 정화활동

'부산바다, 모두의 바다로' 개최

오는 5월 31일 제31회 바다의 날 맞아 부산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환경 정화활동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오는 31일 오후 '바다의 날'을 맞아 영도구 중리 노을전망대 앞 해변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정화활동 '부산바다, 모두의 바다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비영리법인 '글로벌 반려해변 네트워크'(GAA)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동 활동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대한민국의 민간 주도형 해양환경 정화활동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GAA를 출범했다.

올해 정화활동은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쓰레기 종류 및 수거량을 기록하는 해양 폐기물 성상 데이터 조사,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이 진행된다.

활동에는 전국 반려해변 코디네이터와 임양단체, 청년 리더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도 반려해변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참가자는 3시간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중장년층 등)을 위해 사후 문서 제출 방식의 수동 등록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활동을 통해 기록되는 쓰레기 수거량과 정화 면적 등의 데이터는 유엔(UN) 산하 세계자연보전데이터베이스(WDPA)의 글로벌 표준에 맞춰 보고서(리포트)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반려해변 모델'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며, 부산은 해당 해양환경 정화모델의 첫 공식 활동지로 소개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천년고도 전주에서 밤마실 즐기세요"

### 전주시 내달 '전주국가유산야행' 진행

전북 전주시는 오는 6월 5~6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구도심 일원에서 '2026 전주국가유산야행'을 진행한다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후백제 왕도 완산주부터 조선시대 전주부를 거쳐 오늘날 전주시에 이르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올해 야행은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후백제 역사콘텐

츠를 강화해 전주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집중 조명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 ▲견훤대왕배 띄우기 ▲후백제의 왕궁, 산성행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 경기전 쉼비실룩과 향교괴담, 달빛차회, 풍남문 국악공연 등 다양한 야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주국가유산야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볍게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주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야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주의 밤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 포항시, '스페이스워크' 396만명 발길

내달 초 누적 방문객 400만명 예상

포항의 대표 관광명소인 스페이스워크가 누적 방문객 4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장한 스페이스워크의 누적 입장객 수는 최근 396만명을 넘어섰다. 개장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의 성과로, 현재 방문 추세를 감안하면 내달 초 400만명 달성도 예상된다.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 원을 투입해 제작 후 기부채납한 체험형 철제 조형물이다. 가로 60m, 세로 57m, 높이 25m 규모에 총 길이 333m 구조물 위를 직접 걸으며 영일만과 포항제철소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대표 공공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포항 스페이스워크 전경.

있다.

스페이스워크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과 죽도시장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포항이 철강도시를 넘어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영양군

#### '영양 취은당' 문화유산자료 지정

영양군의 향토유산인 '영양 취은당'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영양군은 일월면 도곡리에 위치한 향토유산 '영양 취은당'이 경상북도 고시(제 2026-184호)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취은당'은 조선 후기인 1710년대에 지역 출신 문인인 함양오씨 취은당 오삼달(1674~1744)이 고향으로 돌아와 만년을 보내기 위해 건립한 정자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 가옥과 누정(누각과 정자)의 전형적인 건축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메밀김밥 말고 퀴노아 샐러드 한입... 지속가능 식탁 '똑딱'

## Q 르포

### 플무원 '테이스티플무원'

#### 조리교육 기반 체험형 플랫폼 건강·환경 가치 유기적 연결 "K-지속가능식문화 확산시킬 것"

식탁 위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바른먹거리의 대명사 플무원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소비자가 직접 몸으로 깨우칠 수 있는 혁신적인 체험형 공간을 선보였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플무원 본사 3층에 새롭게 문을 연 지속가능생활 조리학교 '테이스티플무원(Tasty Pulmuone)'이다.

지난 21일 오후 방문한 테이스티플무원은 약 270.58㎡(약 82평) 규모의 모던하고 정갈한 조리 공간을 갖추고 있어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곳은 단순히 요리 기술을 전수하는 여타 쿠킹 클래스와는 시작부터 궤를 달리한다.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식습관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리 교육 기반의 체험형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실습에 앞서 윤명랑 플무원식품 글로벌 마케팅본부장으로부터 조리학교의 설립 취지와 현대 식문화 트렌드에 대한 생생



플무원 본사 3층에 문을 연 지속가능생활 조리학교 '테이스티플무원' 실습 장소. /플무원

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플무원이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포착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리 앞에 앉아 짧고 강렬하게 즐기는 식문화인 스낵킹(Snacking)과 그랩 앤 고(Grab&Go)의 발달이다. 현대인들은 일을 하거나 운전 전을 하면서도 간편하지만 제대로 된 한입을 원한다. 둘째는 은퇴 후 시간과 경제력을 갖춘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프리미엄 헬스클럽의 주역이자 고단백 웰니스 푸드의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른 것. 과거 요리와 거리가 멀었던 5060 중장년 남성들이 밀키트 시장의 새로운 타깃이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확산으로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현대인들은 적은 양을 먹더라도 몸에 오래 머무는 음식이 정말 건강하고 유익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윤명랑 본부장은 "이제 식문화는 단순히 푸짐한 한끼의 경쟁이 아닌 무엇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것인가를 고심하는 한입의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며 "테이스티플무원은 어떤 식재료를 갖고 어떻게 맛있게 조리하여 식탁에 올릴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일상에 습관화시킬지 교육하는 실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지 강사가 진행하는 이론 교육에서는 플무원의 '211 식사법(채소2·단백질1·통곡물1)'과 혈당 관리가 다뤄졌다. 특히 정제된 백미 한 공기의 당 함량이 각설탕 23개 분량에 달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점이 참가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채소, 단백질, 통곡물 순으로 먹어 혈당을 안전하게 조절하는 '거꾸로 211 식사법'과 함께, 매일 500g의 생채소 섭취 및 6시간



닭가슴살 퀴노아 샐러드와 당근라페 메밀 김밥. /신원선 기자

이상 불린 통곡물 혼식을 권장했다.

이론 수업이 끝난 후 본격적인 조리 실습이 진행됐다. 테이스티플무원의 정규 커리큘럼은 본래 2-Day Class(2시간씩 2일)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번 취재는 핵심 요소를 압축한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진행됐다.

기자가 직접 조리한 메뉴는 4대 커리큘럼 중 다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메뉴인 채소가 풍부한 식사 '당근라페 메밀 김밥'은 면역력과 항산화에 탁월한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채소 중심의 메뉴다. 탄수화물 가득한 흰쌀 대신 구수한 메밀면을 감잎에 깔고 잘게 채썬 올리브유와 절인 당근라페를 아낌없이 가득 채워 넣었다. 주황색 당근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아삭한 식감, 메밀의 담백함이 조화를 이뤘다. 일상에서 채소를 맛있고 간편하게 다량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원디쉬밀(One-dish Meal)이

었다. 두 번째 메뉴인 유연한 채식법의 닭가슴살 퀴노아 샐러드 역시 포화지방은 낮추고 영양은 가득 채운 지속가능식단이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통곡물 퀴노아의 톡톡 터지는 식감에 담백하게 구워낸 저포화지방 닭가슴살과 신선한 쌈채소를 곁들였다.

원볼밀(One-bowl Meal) 형태로 설계되어 조리 방식이 매우 간편하면서도 영양학적 균형이 완벽했다.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채식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메뉴였다.

직접 만들고 시식까지 마친 교육 이수자에게는 플무원 굿즈와 정성스럽게 제작된 레시피 카드, 그리고 테이스티플무원 수료증이 제공됐다.

플무원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운영해 자발적인 실천 문화가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테이스티플무원은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당 8명, 월 2회 선착순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플무원 관계자는 "앞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웰니스를 실천하는 한편 푸드 전문가와 외국인까지 대상을 넓혀 K-지속가능식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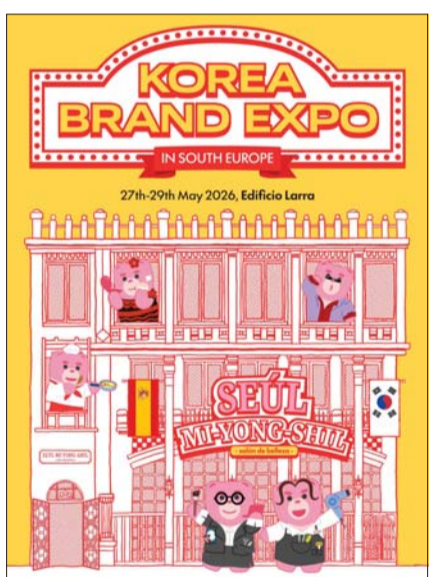
## 롯데,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연다

#### 내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서 행사 뷰티분야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롯데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행사에 나선다.

롯데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6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롯데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뷰티, 식품, 패션,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참가한다. 참가 기업들은 스페인과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초청된 글로벌 바이어 200여명과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며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2026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공식 포스터

상담회에서는 제품 현지화 전략과 수출 관련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롯데는 행사장을 '서울 미용실' 콘셉트로 꾸며 K-뷰티와 K-라이프스타일을 체

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문객들은 웰컴 라운지와 미용실, 컨설팅 라운지, 컬처 라운지 등을 차례로 이동하며 제품 체험부터 수출 상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에스테틱존과 스타일링존, 테라피존 등 세부 공간을 마련해 제품 특성에 맞춘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K-컬처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롯데는 한류 아티스트 팬미팅과 K-팝 커버댄스 행사 등을 열어 현지 고객과 바이어들에게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2016년 시작된 브랜드 엑스포는 아시아와 유럽, 북·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까지 약 1500개 중소기업이 참가했으며, 총 1만1000여 건의 수출 상담과 약 12억달러 규모의 누적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 롯데아울렛·롯데몰, '서프라이스 위크' 돌입

#### 수영복 등 최대 80% 할인 판매

롯데아울렛과 롯데몰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할인 행사 '서프라이스 위크(Sur-Price Week)'를 진행한다. 행사는 전국 롯데아울렛과 롯데몰 광고수지·은평·군산·진주점 등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포츠·패션·리빙 등 전 상품군을 대상으로 기존 아울렛 할인가에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DKNY, 피아리, 탬퍼 등이 참여한다.

여름 시즌 상품 할인전도 진행한다. 래쉬가드와 수영복, 냉감 침구류 등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점포별로는 K2그룹

/신원선 기자

아웃도어 할인전, 라코스테 특가전, LF 특가전, 썬소나이트 클리어런스 행사 등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 엘페이(L.PAY)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L.POINT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3000만원 규모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축구를 주제로 한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동부산점에서는 축구 브랜드 카포(CAPO)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피주점·기흥점·김해점에서는 축구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부산점에서는 프리스타일 축구팀 공연도 열린다.

## CU 봉주르빵집 상품 5종 출시

#### '청보리밭 타르트' 등 방송 레시피 활용

CU가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과 협업한 빵·디저트 상품 5종을 출시한다. 방송에 등장한 레시피를 활용한 제품으로 이달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대표 상품인 '청보리밭 타르트'는 사브레 위로 청보리 가나슈, 청보리 크림, 레몬 크림 등을 올려 산뜻하게 마무리한 디저트다. 13일부터 포켓CU를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작품 속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관심을 끌어 6일간 매일 100개가 1분 만에 동나기도 했다. CU는 25일부터 5일 동안 매일 120개씩 추가 판매할 계획이다.



모델이 CU에서 봉주르빵집과 협업한 디저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BGF리테일

함께 출시되는 '청보리 브리오슈'는 브리오슈 번 위에 청보리 쿠키를 올렸으며, '복분자 크로와상'은 복분자 잼과 라즈베리 잼을 넣은 제품이다. '뽕오소콜라'는 땅콩 필링과 다크 초콜릿 스틱을 넣었고, '밤호박 바브카'는 밤호박을 활용해 단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롯데온, 뷰티테크 페스타... 최대 57% 할인

#### 글램팜, JMW, 유닉스 등 참여

롯데쇼핑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여름철 셀프케어 수요를 겨냥한 '뷰티테크 페스타'를 진행한다. 헤어 스타일링기와 드라이어, 가정용 제모 의료기기 등 뷰티 다바이스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글램팜, JMW, 유닉스, 유라이

크, 라피타 등 브랜드가 참여해 헤어·뷰티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글램팜의 '글램뮤즈 터치 플랫', JMW의 '프리피 세라믹 코팅 열판' 등이 있다.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조한 헤어 스타일링 기기 중심으로 구성했다.

드라이어 제품으로는 유닉스 '에어스피드 더 네오 하이스피드'와 글램팜 '글램시크

에어 터치' 등을 판매한다. 고속 건조와 스타일링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제품군이다.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용 제모 의료기기도 행사에 포함됐다. 유라이크 '사파이어 쿨링 제모 의료기기', 라피타 '글라이딩 IPL 제모 의료기기', '오레이저 IPL 제모 의료기기' 등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최대 57% 즉시 할인 혜택과 최대 15% 중복쿠폰을 제공한다. 일부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브랜드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 “내 피부에 맞는 컬러는?”… MZ·외국인 홀린 20가지 팩트

## 애경산업 ‘AGE20’S 팝업’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 인텐스 커버 라떼아트 연상시키는 3색 디자인 커피트릭으로 브랜드 부스 꾸며 제품 직접 체험 공간 발길 이끌어 화장품 매출 비중 50% 달성 목표



커피 트릭으로 꾸민 브랜드 부스와 제품 모델 ‘최미나수’ 협업 포스터.



브랜드 대표 제품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 인텐스 커버’.

애경산업이 최신 K뷰티 주력 소비자층인 MZ세대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국내외 화장품 시장 모두에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H&B(헬스앤뷰티) 채널 강화와 글로벌 다변화에 중점을 둔다. 올해 1분기 화장품 매출이 13% 증가한 만큼 실적 반등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화장품 매출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사업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사적 기조가 반영됐다.

25일 애경산업은 서울 홍대에 위치한 CJ올리브영 홍대공화철도역점에서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 팝업 행사를 열었다.

해당 지역은 국내 대표 관광 상권으로

현장은 젊은 층과 외국인 유동 인구가 집중되면서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에이지투웨니스 브랜드 대표 제품인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 인텐스 커버’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고체 파운데이션에 에센스 성분을 71%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메이크업 기능을 구현함과 동시에 스킨케어 성분이 피부 보습과 윤기를 관리해 준다. 촉촉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발리는 제형은 라떼 아트를 연상시키는 3색 디자인까지 갖췄다.

애경산업은 제품 차별화 요소를 반영해 행사 주제를 ‘에이지투웨니스 카페’로 기획하고 커피 트릭을 브랜드 부스로 꾸몄다. 또 단일 제품 모델로 발탁한 ‘최미나

수’와 협업한 포스터를 설치해 시선을 끌었다. 최미나는 최근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OTT) 넷플릭스 화제작 ‘킬잇’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기 스타다.

커피 트릭 내부 공간의 진짜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가 돋보였다. 벽면에는 ‘당신의 라떼를 찾아보세요’라는 직관적인 문구와 함께 제품들을 진열했다. 매대 위에는 ‘글로벌 NO.1 팩트’라는 메시지를 넣은 음료들이 정렬돼 재미를 더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역이었다. 제품을 구현한 대형 모형은 독보적인 촉촉함을 자랑하는 밤 제형의 질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 주위에는 13C부터 35N까지 총 20가지가 제품을 배치했다. 다

양한 국적의 시장을 정교준해 제품 색상을 세분화하는 등 애경산업은 주력 제품의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피부 톤이 다양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자신에게 꼭 맞는 컬러를 정밀하게 고를 수 있는 구성이다.

애경산업의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는 화장품 사업의 뚜렷한 외형 성장세와 궤를 같이한다.

애경산업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588억원,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을 기록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57억원으로 견조한 본업 수익력을 유지했다.

이 중 화장품 사업의 1분기 매출액은 5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급증하

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은 국내 65%, 수출 35%로 집계됐다. 애경산업은 글로벌 핵심 국기를 중심으로 한 다변화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놴다.

애경산업은 에이지투웨니스를 비롯해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 등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서도 틱톡, 카이쇼우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구조 재편을 통해 매출 성장 전환을 이뤄냈다.

아울러 시그니, 원싱 등 스킨케어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메이크업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화장품 사업부를 메이크업 부문, 스킨케어 부문 등으로 전격 재단장한 바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무빙 팝업은 에이지투웨니스의 대표 제품인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의 진짜 에센스를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적극 경험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활동을 계속 마련해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유한양행, 약사와 현대인 실질 건강관리 박차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4종 선배 혈전제거, 혈당상승 억제, 오메가3 등 건강 고민별 맞춤형 기능성 원료 처방

유한양행은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4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은 건강 고민별 맞춤형 기능성 원료를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유한 나토 코큐텐’은 나토카나제와 코엔자임Q10을 함유해 혈전 제거, 항산화, 혈압 감소 등에 효과를 갖췄다.

‘유한 카테킨 바나바’는 녹차추출물과 바나바잎추출물에 부원료 베르베린을 배합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지



약국 전용 ‘유한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4종. /유한양행

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유한 rTG오메가 800추’는 흡수율이 높은 캐나다산 소형 어종 유래 오메가3로 설계해 혈행을 개선한다.

‘유한 멀티비타23 데이어나잇’은 비타민 14종과 미네랄 9종을 담았다. 이 제품은 종합영양제로 낮과 밤 생체 리듬에 적

합한 영양 공급을 위해 정제를 분리 구성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들 발매에는 현장 약사들의 전문 의견이 반영됐다. 유한양행은 현장에서 약사들과 적극 소통하며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건강관리법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약사 고유의 복약 지도와 합리적인 가격을 결합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동국제약 ‘마이핏’, 특허 공법으로 흡수율 ↑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

동국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핏에서 신제품으로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사진)’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처방해 종합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동국제약만의 독자 배합으로 비타민A, 비타민B1·B2, 나이아신, 미네랄 17종 등을 한 데 담았다.

특히 국내 특허를 획득한 리포프리임 공법을 적용해 유효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했다. 비타민, 미네랄 등을 리포솜에 담아 내포 작용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하게 하는 기전이다. 리포솜은 체내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



진 미세 구형 물질이다.

동국제약은 리포솜 구조와 내부 성분을 투과전자 현미경(TEM)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고 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술력을 확인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종합비타민을 찾고 있다면 하루 1정으로 간편하게 필수 영양을 충전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동아에스티, 브라질에 ‘K-디지털 헬스케어’ 공급

‘호스피탈라르’서 카르디오스와 ‘하이카디 플러스’ 유통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는 지난 2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 ‘호스피탈라르 2026’에서 브라질 심장 모니터링 전문기업 카르디오스와 ‘하이카디 플러스’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기존 파트너사인 카르디오스 웹, 브라질 유통사 카르디오스 등과 함께 3자 유통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브라질 내 유통망과 병원 영업망을 기반으로 현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2024년 브라질 심장 진단 및 원격의료 기업 카르디오스 웹과 ‘하이카디’ 브라질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2025년 2월에는 2월 브라질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위생감사국에서 하



지난 21일 ‘호스피탈라르 2026’ 행사장 내 브라질 카르디오스 기업 홍보관에서 동아에스티 디지털헬스케어 박희봉 실장(왼쪽부터), 카르디오스 총괄 책임자 에리카 크리게르, 기술 책임자 필리피 안투니스, 카르디오스 웹 영업·마케팅 총괄 책임자 로드리고 파도베즈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아카디 플러스’에 대한 사용 승인을 획득해 같은 해 6월부터 브라질에서 출시했다.

‘하이카디’와 ‘하이카디 플러스’는 웨어러블 생체 신호 감득 시스템이다. 심전도 패치를 환자에 부착하고 스마트폰 등과 연동해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동 제약 없이 환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확보해 의료진에게 실

시간 전송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브라질 원격 모니터링 생태계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남미 전역에서 하이카디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광동제약, 파브리병 치료제 국내 품목허가

‘엘파브리오주’ 새로운 치료 옵션 제공 식물 세포 유래 재조합 단백질 적용

광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 유전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 ‘엘파브리오주’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엘파브리오주는 국내 최초로 식물 세포 유래 재조합 단백질을 적용한 파브리병 치료제다. 파브리병 환자에게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 당지질 축적 감소에 도움을 주며, 성인 환자의 장기 효소대체요법에 사용된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4주 1회 투여 요법에 대한 승인 권고를 받아, 기존 2주 주기 치료 대비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파브리병은 알파-갈락토시다제 A(alpha-galactosidase A) 효소 결핍으로 발

생하는 희귀 유전성 리소좀 축적 질환이다. 체내 당지질이 축적되면서 혈관각화증, 복통, 단백뇨, 말단 통증, 발한 이상, 청각 및 시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 신장·심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23년 이탈리아의 희귀약품 전문기업 키에시(Chiesi Farmaceutici)와 엘파브리오주를 포함한 희귀약품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허가 절차와 도입 준비를 추진해 이번 품목허가 획득으로 이어졌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엘파브리오주 국내 허가를 통해 파브리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치료제 도입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창업상담 | 1644-0622



으뜸스시  
Sushi Saikō

고객이 먼저  
찾는 스시,  
창업자가  
다시 보는 브랜드

5/27 (수) 34호점,  
으뜸스시 구리점 오픈!



2,200원  
균일가

가성비 & 가심비  
모두 만족



100가지  
이상 메뉴

남녀노소, 가족 모두  
만족하는 메뉴 구성



당일 작업 및  
당일 판매

참치·활어 중심의  
신선한 메뉴



서울 및 전국  
창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보 창업자도 가능



**NH협은행,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실천**

NH협은행은 지난 22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소재 NH통합IT센터에서 'NH 에너지 다이어트(Energy Diet)'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NH협은행 테크(IT)사업부문 임직원들이 'NH 에너지 다이어트(Energy Diet)' 캠페인을 진행하며 활동 구호를 외치고 있다. /NH협은행



**소원 담아 우주로... 보령, 메시지 벽 캠페인**

보령은 전국 주요 종합병원과 대학교에서 메시지 벽을 설치하고 '달로 보내는 나의 소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시민 참여형 행사로 수집한 메시지는 달 탐사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보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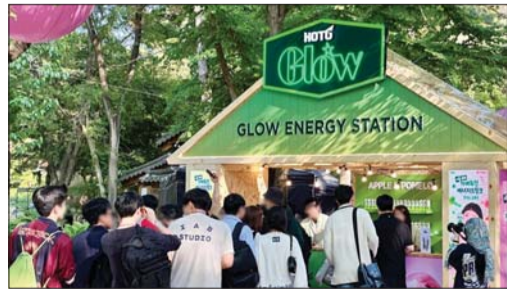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초청 '상생간담회' 개최**

부산항만공사(BPA)가 환경·안전·투명(ESG) 경영의 확산 및 상생 협력을 위한 '2026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협력업체 40여 곳의 임직원·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부산항만공사



**여경협, 소피코리아와 여성기업 동남아 진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유한회사 소피코리아컴퍼니와 '여성기업 제품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여경협과 소피코리아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창숙 여경협 회장(오른쪽)이 아만다 영 소피코리아 지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롯데칠성음료, 페스티벌서 핫식스 글로우 홍보**

롯데칠성음료가 남이섬에서 열리는 '디어어하우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에너지 음료 '핫식스 글로우'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방문객들이 디어어페스티벌에서 핫식스 글로우 시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 美 더 CJ컵 찾은 이재현 “K-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확대”

(CJ그룹 회장)

브랜드 체험 공간·사업 전략 점검 북미 시장 소비자 접점 확대 추진

CJ그룹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K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국 텍사스 현장을 직접 찾아 K푸드·K뷰티·K콘텐츠 체험 공간을 점검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을 주문했다.

25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에서 열린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방문해 그룹 브랜드 운영 현황과 현지 관람객 반응 등을 살폈다. 이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더 CJ컵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더 CJ컵은 단순 스포츠 후원을 넘어 CJ그룹의 K라이프스타일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회 기간인 21~24일(현지시간) 동안 약 24만명의 갤러리가 현장을 찾으며 역대 최대 관람객 기록도 새로 썼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미국 더CJ컵 현장을 찾아 체험 공간을 점검했다. /CJ그룹

CJ그룹은 골프장 중앙에 조성한 '하우스 오브 CJ'를 중심으로 비비고, 올리브영, 푸레쥬르, SCREENX 등 그룹 핵심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했다. 관람객들은 K푸드 시식과 K뷰티 체험, 콘텐츠 관람 등을 함께 즐기며 축제형 공간을 경험했다.

특히 올해 하우스 오브 CJ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된 750㎡ 수준으로 조성됐다.

페어웨이 주변에는 비비고 컨디션과 K스트리트푸드 브랜드 '두루미' 부스 등이 마련돼 떡볶이와 만두 등 K푸드를 경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리브영은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북미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더 CJ컵을 단순한 골프 대회를 넘어 미국 내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룹의 글로벌 사업 영역을 빠른 속도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CJ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K컬처 확산 흐름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접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K팝과 한국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체험형 마케팅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은 CJ그룹의 핵심 전략 지역으로 꼽힌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중심으로 북미 식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CJ올리브영 역시 글로벌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더 CJ컵 운영 경험은 향후 북미 시장 내 브랜드 확장 및 유통망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쿠광필필먼트, 어르신에 생필품 나눔 유한양행, 미래 헬스케어 인재 키운다

진해구청과 생필품 꾸러미 전달 올해로 3년째 사회공헌 활동

쿠광필필먼트서비스(CFS)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상생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CFS는 지난 22일 진해구 일대 홀몸어르신 80가구에 두유, 라면, 김, 양념 세트 등 생필품이 담긴 '와우 동행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진해구청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CFS 창원1·2·3·4센터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조를 나눠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인부를 살폈다.

이종근 진해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쿠광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에게 큰 위



쿠광필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진해 응동 일대 홀몸어르신의 집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쿠광

로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모 CFS 정책실 전문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FS는 '와우 더 소사이어티(Wow the Society)'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매년 5월 필필먼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홀몸어르신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내달 7일까지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 여정 속에서 창업자 유일환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사회를 이끌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유한양행은 오는 6월 7일까지 유일한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일한 아카데미 2026'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30명을 선발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생 및 프로그래밍 전공자를 우대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유일한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보건·

의료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 이뤄지며 학계 전문가 특강, 현장 견학, 헌업 임직원의 멘토링 등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회 '유일한 임팩트 포럼'을 통해 기업·재단·임팩트투자·AI 솔루션 분야 등 각 영역 전문가 심사위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7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0회로 구성돼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 유한양행 본사 옆 새뜰마을 관하는 월로우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마주한 보건, 복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향후 미래 헬스케어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 농협하나로마트 내 다이소 입점

생활용품 품목 늘어 편의 증진 기대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영업점에 다이소 매장이 입점한다. 농협은 이 같은 양측의 유통 업무 협력하에, 농어촌 주민을 위한 생활용품 품목 개수가 늘어나는 등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자민주 아성다이소와 '농협하나로마트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주민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상품 개발 및 다이소 입점 확대 ▲상호 연계 금융서비스 마련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사** ◆시사IN △편집국장 이오성

**부음** ▲문홍구(女洪久·한시집 '우서집' 저자·한국전쟁 참전 유공자·향년 96세)씨 별세, 문갑임·문영목(전 농어촌공사 부장)·문영순·문영환(일성 대표)·문숙란·문의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수석위원)·문의숙씨 부친상 = 24일 오후 5시께, 거창 서경병원 장례식

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55-945-0130. ▲김후미자씨 별세, 윤은경(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종철·윤미경씨 모친상, 유족결(변호사)·정서진씨 장모상, 박희정씨 시모상 = 2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5호실, 발인 26일 오전, 장지 영락공원. 051-893-4444.

## 중진공, 국민 참여 '청렴 AI 솟품 공모전'

총 상금 300만원, 기관장 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한 중진공 AI+ 솟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중진공의 청렴 문화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부패 경험 '제로(0)' 달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공정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앞장서는 중진공'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을 통해 '건전한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중진공'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내부통제로 '스마트 청렴을 실현하는 중진공' 등 총 3개로, 국민이 바라는 '청렴한 중진공'을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I를 활용해 60초 이내

의 세로형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AI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AI 영상 제작 방법'을 공식 채널에 게시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수상작의 최종 순위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7편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중진공 임직원 평가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300만원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중진공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중진공이창설 기획관리이사는 "발굴한 아이디어는 내부 교육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접수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식은 밥의 역설, 저항성 전분



연운열의  
푸드톡

편의점 냉장 진열대에 삼각김밥이 줄지어 놓여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급한 한 끼라고 부른다. 누군가는 외로운 도시인의 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곳에 역설이 있다. 방금 지은 뜨거운 밥보다, 차갑게 식은 밥이 몸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따뜻한 밥 한 끼”를 위로라고 여겨왔다. 김이 피어오르는 숯밥. 어머니가 데워주던 찬밥. 국그릇 위로 번지던 겨울 새벽의 수증기. 우리의 밥상은 늘 온기의 문화였다. 하지만 과학은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정말 뜨거운 음식만이 몸에 좋은 음식인가.”

식품과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분야 가운데 하나가 저항성전분(Resistant Starch)이다. 쉽게 말하자면 빠르게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이다. 그리고 장 속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반응한다. 마치 과속 사회를 거부하는 탄수화물과도 같다. 우리는 지금 너무 빨리 먹고 있다. 배달앱은 20분 안에 음식을 가져온다. 편의점은 24시간 불을 끄지 않는다. 전

자레인지는 3분 안에 식사를 완성한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점점 더 느린 음식을 원하기 시작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은 소화기 빠르다. 탄수화물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며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하지만 밥을 식히면 일부 전분의 분자 구조가 변한다. 소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항성 전분이다.

최근 해외연구 논문들은 저항성전분이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장 건강과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국 뉴캐슬대 연구진이 진행한 장기 연구는 흥미롭다. 린치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 임상시험에서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상부 소화관 암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도·위·담도·췌장·십이지장 같은 부위에서 예방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식품영양학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우리가 흔히 덜 익어 맛이 없다고 생각하던 푸른 바나나 속에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다. 너무 익기 전의 바나나는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에 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 묘한 현상이다.

현대 영양학은 가장 첨단 언어를 사용하

지만, 결국 인간 몸의 답은 오래된 자연 속에 숨어 있다. 생각해 보면 한국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항성전분을 먹고 있었다. 식은 주먹밥, 농촌의 새벽 들판에서 먹던 찬밥 한 덩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어머니의 식은 도시락, 우리는 그것을 가난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대는 다시 그 음식을 건강의 언어로 부르고 있다. 미래는 때때로 과거의 얼굴로 돌아온다. 한국 음식문화의 핵심은 원래 ‘느림’이었다. 김치는 기다림이었다. 된장은 시간을 먹는 음식이었다. 막걸리도, 식혜도, 장독대의 발효도 모두 천천히 삭아야 완성됐다. 우리는 그것을 “슬로우 푸드”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식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즉시성의 시대다. 배달앱은 늦으면 별점이 떨어진다. 전자레인지가 기다림을 제거했다. 플랫폼은 인간의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갬다. 그 결과 인간의 장은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혈당 반응, 장내 미생물, 대사 건강, 포만감 지속성 이런 요소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과거 식품산업이 ‘맛’을 경쟁했다면, 미래 식품산업은 ‘몸의 반응’을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우리의 장은 지금, 식은 밥 한 순갈로 뜨거운 문명에 조용히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술·칼럼니스트

# 삼성 노사합의,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으려면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00조 원대의 파국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합의로 우리 사회는 큰 숙제를 마주하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은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협상 타결을 넘어 한국 산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특히 반도체처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본격화했다는 점은 산업계에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기준이 미래 경쟁력보다 당장의 현금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기업의 수익에 대해 소속 구성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 문제는 반도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대응할 체력이 부족할 수 있다. 기업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사의 투자 여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불안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변수 속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여력이 흔들릴 경우 경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 이탈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의 몰락한 사례도 있다. 당시 일본은 NEC,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후지쯔, 미쓰비시전기 등 대형 기업들이 세계 DRAM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

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상위 10에 이름을 올린 일본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변화보다 기존 구조 유지에 안주했던 일본 기업의 자리에는 오랜기간 대규모 투자를 하며 경쟁력을 키운 한국과 대만 등의 기업이 들어왔다. 조용히 칼을 갈아온 미국의 인텔은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단순히 그들의 성과로 치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삼성전자 수습만 임직원이 수년간 흘린 땀으로 맺어진 결과물이다.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다른 부문에서 만든 수익금으로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

/ysw@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6일 (음 4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60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홍반길입니다. 72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세요. 84년생 떠난 연인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49년생 뜻밖의 지출이 늘겠습니다. 61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습니다. 73년생 무리 말고 잠시 쉬었다 가세요. 85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반갑게 찾아옵니다.



50년생 길을 잃고 방황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곧 해결됩니다. 62년생 사소한 일로 시비하지 마세요. 74년생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86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기급적 삼가세요.



51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입니다. 63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습니다. 75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 보세요. 87년생 한 발짝씩 양보하여 화해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64년생 대중교통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76년생 혼들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88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래는 잠시 연기하세요.



53년생 피꼬리가 가지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입니다. 65년생 재물과 영화가 찾아옵니다. 77년생 구설을 조심하세요. 89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세요. 들어줄 것입니다.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가망동 하지 말고 차분히 행동하세요. 78년생 북쪽 방향이 길하니 참고하세요. 90년생 어려운 시험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55년생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조금만 견디세요. 67년생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79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세요. 91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56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재물이 깃들입니다. 68년생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80년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92년생 뒷사람에게 큰 조언을 듣게 됩니다.



57년생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69년생 이로운 일이 많습니다. 81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93년생 여행을 떠나면 해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58년생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합니다. 70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8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94년생 새로이 시작하려는 일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59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71년생 뜻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83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95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화장세계

전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라고 한다. 케이팝과 드라마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끈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이 나이에 비해 동안인 데다가 피부도 상대적으로 뽀얗고 한 이유가 분명 화장품에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국산 화장품들의 인기가 일순간 반짝하고 마는 현상이 아니라 가격 대비 제품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꾸준히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여행의 목적 중의 하나가 화장품 구매도 한몫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백악관의 최연소 대변인 캐롤라인 레잇이 짬을 내어 한국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SNS에 공개해 국내에서 화제를 모은 것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보여준 상징적인 예였다.

거칠기로 유명한 그녀의 입이지만 한국 화장품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트 표시로 나타내며, 구매한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 여러 종을 나열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쇼핑을 넘어, 돈을 들이지 않고 전 세계에 제품 광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녀가 게시하자마자 해당 게시물은 24시간 만에 '좋아요' 50만 건을 돌파했으며 일부 제품은 미국 내 온라인몰에서 품절 사태를 빚었다고 한다. 'K-뷰티' 효과가 톡톡히 발현된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에 진심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사를 바꾼 여인 중 하나인 클레오파트라 역시 화장발 미녀라는 말까지 있기도 하다. 클레오파트라의 옆 모습을 그려 만든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미인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매부리코였고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라는 미녀가 아름다운 여성은 아니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클레오파트라를 최고의 미녀로 만든 것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화장술, 즉 '화장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장도 부지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6				8
						2	1	3
	2			9	1	5		
1				2			5	7
5								6
9	3			5				1
		5	1	8				6
8	1	7						
2			7	3				5

4	7		5		9	3	8	
9	2						6	
8			9	3				7
		8						
7	2				1		3	
					8			
6			5	3				9
	8						7	2
2	4	1	6		3		5	

5	8	6	7	8	4	1	9	2
6	8	7	2	9	5	1	1	8
2	9	1	8	8	1	9	6	7
1	7	8	1	9	2	9	6	6
9	2	8	8	1	6	7	1	9
1	9	9	6	2	7	8	8	1
7	1	9	1	6	9	8	2	8
8	1	2	9	1	8	6	7	9
8	6	1	9	7	8	2	9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1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2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국민 앞 '공개 검증대' 오른다

교육부, 글로컬대학 평가 첫 공개  
내일부터 유튜브 생중계 진행  
35개교 혁신성과 국민 검증대  
지원금은 등급 따라 차등 조정  
부진 대학은 지정 취소도 가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가 1000억원 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이 어떤 혁신 성과를 냈는지 국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지방대학을 선정해 5년간 단독 기준 1000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27개 모델(35개교)이 지

정돼 있다.

교육부는 사업 4년차를 맞아 대규모 재정지원에 걸맞은 성과 검증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평가를 공개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

층 질의응답 전 과정을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평가는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나뉜다. 연차평가는 2024~2025년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지난해 혁신과제 추진 실적을 평가하

며, 동행평가는 2023년 지정된 10개 모델의 3년간 누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한다.

연차평가는 ▲27일(대한한의대·한동대·건양대·순천향대·한서대·경성대) ▲28일(원광대·경북대·동아대·대구가톨릭대·제주대·충남대·국립공주대) ▲29일(창원대·한국승강기대·인제대·국립목포대·조선대·조선간호대·전남대) 등이다.

동행평가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다. ▲6월 8일(국립경국대·포항공대) ▲6월 9일(울산대·부산대·부산교대) ▲6월 10일(경상국립대·국립순천대) ▲6월 11일(전북대·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6월 12일(강원대·한림대)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은 차등 조정된다. 연차평가는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10% 추가 지급되거나 30% 이상 삭감될 수 있다. 동행평가는 환류 폭이 더 커 20% 추가 지급 또는 50%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

성적이 낮은 대학에는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하위인 D등급을 2차례 받거나 C등급 이하가 3차례 누적될 경우 보완 요구 없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과제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거나 통합모델로 선정된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도 취소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특성화지방대학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수치 실적만 보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혁신과제가 실제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가 대학 경쟁력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라며 “특히 2023년 지정대학의 동행평가는 혁신과제 이행도 뿐 아니라 대학 경쟁력 변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향후 실행계획까지 종합 평가해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엄격히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양주시, AI로 생활도로 사고 예방

국토부 AI 시티 공모사업 선정  
생활·이면도로 충돌위험 사전 예측  
보행자·차량·PM 사고 예방 기대

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한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AI 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도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고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것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해 기간별로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이면도로 충돌 위험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시스템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술을 생활도로와 이면도로에 접목해 보행자와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사전 예측하고, 사각지대 위험 상황을 인지해 현장에서 경고 알람을 보내는 등 돌발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간선도로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를 생활권도로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며, “생활도로 속 사각지대까지 인공지능 기술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A등급 늘어난 고교 내신, 변별력 시험대

학교시험 평균·A등급 비율 상승  
5등급제 전환에 변별력 약화 우려  
대입서 원점수 평가 변수 부상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고교 학교시험 평균점수와 A등급 비율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인원이 늘어난 데다 대학이 내신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까지 볼 수 있어, 수험생들은 등급 관리와 점수 관리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 4월 30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개교의 2025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집계됐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2024년 고1 2학기 평균 66.9점보다 3.5점 오른 수치다.

전 권역에 걸쳐 평균점수가 상승했고

성취도 90% 이상인 A등급 비율도 증가했다. 주요 5개 교과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2024년 2학기 21.6%보다 2.5%p(포인트) 높아졌다.

학교 내신과 전국 단위 시험 간 난도 차이도 확인됐다. 2026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국어 50.1점, 수학 41.3점, 영어 55.5점이었다. 같은 학생들이 전년 치른 고1 2학기 학교시험 평균과 비교하면 국어는 21.6점, 수학은 24.7점, 영어는 12.7점 차이가 났다. 학교시험이 수능 모의고사보다는 쉽게 출제된 셈이다.

종로학원은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1등급 구간이 기존 9등급제의 4%에서 10%로 넓어지면서 변별력이 약해졌고, 학교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내신 등급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이수 상황, 과목별 원점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내신의 평균점수와 A등급 비율이 함께 오르면서 등급만으로 학생 간 차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원점수를 어떻게 평가할지 불확실한 데다 학교시험과 수능형 시험의 난도 차이도 커 학생 입장에서 내신과 수능 대비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43

5월 26일 (화)  
음력 : 4월 10일

수도권 날씨  
21 ~ 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9/24, 동두천 20/24, 가평 19/23, 파주 19/24, 서울 21/25, 양평 20/25, 수원 21/24, 용인 21/24, 평택 20/24, 백령도 17/21, 인천 21/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경기도, 이주민 유권자 투표 참여 돕는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홍보물 제작  
13개 언어·그림으로 투표 정보 안내  
이주민 지원기관·SNS 통해 배포

경기도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도는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등 총 13개 언어와 그림으로 제작되었으며,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를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주민은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가

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해, 투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며,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함께한다.

윤현욱 경기도 이민국정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60일 휴전 연장 추진... 트럼프 “서두르지 말라”  
▲헤즈볼라 수장 “美·이란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돼야”  
/사진 뉴스스

▲美정보당국 “하메네이 은신 중... 美·이란 협상 지연 원인”  
▲美·이란 원칙적 합의 나왔지만... “유가 급락·운송 정상화까지 수개월”

▲“美관리, 이란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호르무즈 개방 ‘원칙적 합의’ 밝혀”  
▲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재개 논의



테이스티 풀무원  
지속가능식생활  
확산 나서  
너



Life

애경산업  
AGE20's 팝업  
MZ·외국인 공략  
L2



# 모두의 내일이 따뜻하도록... 그늘진 곳 비추는 '포용금융'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모두의 내일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람 중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장애인 연계 고용제도를 통한 일자리 확대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정기 기부 활동,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동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 ◆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 ESG

주목할 것은 '장애인 연계 고용제도'다. 우리카드는 금융권 최초로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우리금융그룹 장애인 연계 고용제도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애인 연계 고용제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

도움 필요한 이웃 중심 상생경영 펼쳐  
다문화·저소득층 아우르는 나눔 실천

전 그룹사 장애인 연계 고용제도 참여  
장애인 자립 돕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1사1동 결연 독거노인 정기 기부활동  
식료품·생활용품 등 행복꾸러미 전달

립 기반 마련에 기여 한다.

우리카드는 제도 참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농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조명 설치를 비롯해 임직원 간기 챌린지를 통한 휠체어 기금 마련, 정형화 신발 지원,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에코백 제작 주문 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꾀한다.

#### ◆ 독거노인 돌봄...정기 기부 활동

우리카드는 1사 1동 결연을 통해 가정의 달, 추석, 겨울맞이 등 시기별로 독거노인을 위한 정기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 지원 활동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돼 왔다.



Chat GPT로 생성한 장애인 사회공헌 관련 이미지.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창신2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100가구에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 행복 꾸러미는 햇반, 라면, 즉석 국세트, 김치 볶음, 도시락 김, 스펀, 장조림, 고추장 등 식료품과 양치 도구, 로션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해당 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4차례에 걸친 기부 활동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아해 식료품 100박스를 각각 기부했다. 겨울에는 독거노인 100가구에 김치 1톤을 전달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2월 창신2동과 결연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명절, 가정의 달,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하는 일정이 많은 5월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상생 활동

저소득층과 고령인 동포 등 주변 이웃을 위한 나눔도 실천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50가구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고령인 동포 청소년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에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지원금은 로템나무 국제 대안학교 운동장 조성 공사와 함께 한국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에 사용됐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나눔 활동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의 ESG 경영 기조에 맞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활동도 있다. 우리카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저소득층·고령인 동포 등 이웃 도와  
대안학교 조성 등 교육 환경 개선 앞장  
금융교육 등 다문화 가정 돌봄활동도

영세 소상공인 위한 ESG 채권 발행  
카드결제대금 조기정산 등 가치창출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 어린이 생필품 나눔, 다문화 어린이 초청 스포츠 및 뮤지컬 공연 관람, 다문화 금융 교육이 대표적이다.

#### ◆ ESG 채권 발행 확대

우리카드는 ESG 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022년에는 1조7418억원, 2023년 1조7771억원, 2024년 1조5497억원, 2025년 8700억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을 진행했다. 지난해 채권 발행액은 업계 상위 수준이다.

ESG 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 가능 채권, 지속가능 연계 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카드 ESG 채권은 영세·중소상공인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올해는 사회적 채권 형태로 한화약 3000억 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했다. 이번 조달 자금 역시 영세·중소상공인 카드결제대금 조기 정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국내·외 조달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ABS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안정적 자금조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조달 비용과 원화카드채 발행 부담을 경감했다. 향후에도 자금 조달 다변화를 통한 재무안정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이인복 우리카드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과 남성현 창신2동장이 지난달 30일 우리카드 행복 꾸러미 나눔 행사가 진행된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임직원 20여명이 지난해 12월 서울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손흥민, MLS 무득점으로 흥명보호 합류...시에틀에 1-0 승리  
▲흥명보호, 32강 1억원·16강 2억원씩...역대 최대 규모 포상금 /사진 뉴시스

▲만유 페르난데스, EPL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21개' 달성  
▲무료로 즐기는 최정원표 뮤지컬... '시카고·맘마미아' 명곡 채운 구로 '사운드트립'

▲하이브 아트페어 5271명 관람...전시 실험은 주목, 흥행은 숙제  
▲6만명 몰린 아트부산, 판매도 성과... '로컬 컬렉터의 힘 확인'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투자의 시대 고객의 성장과 함께하는 신한 新韓

## 신한투자증권 신한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